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재한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간병인을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방우서

Master'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A Study of Labor Force Community of Migrant  
Korean-Chinese in Korea  
Focusing on Caregivers

August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FANG YUSHU

# 재한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간병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방우서

방우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원장 박태균 (인)

부위원장 이유재 (인)

위원 은기수 (인)

## <한글초록>

# 재한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 간병인을 중심으로

방우서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 사회는 점차 순수한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본부와 국가통계포털 (KOSIS) 등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선족(또한 중국동포, 한국계 중국인)은 현재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고 낯선 나라인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 달리 조선족은 한반도의 역사,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유지해 왔다.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신분 특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종종 겪고 있다. 한편,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 상으로는 중국인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같은 한민족으로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한(韓)민족이자 중국국적을 지닌 집단을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나, 이에 대한 명명법은 ‘중국동포’, ‘재한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 등 다양한 어휘가 혼재 사용된다.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통해 한반도와 중국이 긴밀한 연결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라는 이 단체의 역사적인 추이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시간대로 정리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조선족을 구소련 ‘고려인’과 함께 ‘재외동포’라고 분류했으며, 한·중 수교 후 관련된 동포 입국 정책을 많이 시행하면서 조정하고 있다. 이어 단기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등 비자를 신청하여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진입하고 생활하며 근무를 시작했다. 이 중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 간병일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들의 경제활동은 계절노동과 연계되는 건설업과 가사 노동자·간병인의 돌봄노동이나 음식점 종사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본부와 국가 통계포털(KOSIS), 관련 영역 학자들의 선행 연구 등 자료를 활용하며 재한 조선족 간병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예전부터 일이 힘들어 특히 코로나 시대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간병인을 비롯한 직업을 종사하게 되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경제활동의 역사 추이와 간병인의 근무 현황, 개개인이 정체성에 대한 사고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향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같은 민족 ‘외국인’인 조선족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조선족, 중국 동포, 외국인, 이주민, 간병인, 비자, 경제활동

학생번호: 2019-24300

##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기존 연구 검토 .....	3
1. 3 연구방법 및 논문 구성.....	9
제 2 장 역사적인 추이 .....	11
2.1 조선족이라는 존재 .....	11
2.2 한국으로 유입되게 하는 과정 .....	17
2.3 재한 조선족 체류현황 .....	25
제 3 장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의 특징 .....	31
3.1 조선족 경제 단체의 형성 과정.....	31
3.2 조선족 간병인의 현황 및 인터뷰 분석.....	35
3.3 한국 사회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 변화 .....	52
제 4장 결론.....	56
참고문헌 .....	60
ABSTRACT .....	

# 제 1 장 서론

## 1.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간의 교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중요한 국가 하나로서 이러한 추세의 물결을 저절로 타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이미 191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sup>1</sup>,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강한 경제체의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에서 한국 전통 문화와 한류 등 대중문화는 또한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세계 펼쳐지고 있다. 여러 요소로 한국은 더이상 ‘단일 민족’인 나라 아니라고도 하게 되고, 대신 수많은 외국인들은 멀리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한국 국내 등록 외국인 현황에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한국 국내 총 등록 외국인 인원수는 약 117만 명이고, 그 후 2018년 125만 명, 2019년 127만 명, 2020년 115만 명으로 나왔다. 필자의 판단에 따라 2020년 코로나 등 원인으로 인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 인원수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등록외국인의 수량은 대충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 것이다.

이러한 계속 늘어지는 외국인 인원수 중 한국계중국인 (이하 ‘조선족’)은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한반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한국 국내 약 127만명 외국인 중 26% 조선족이고, 또한 2020년에 총 1145540 명 외국인이 한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조선족은 285933명으로 역시 등록 중국인 전체의 약 62%, 등록 외국인 전체의 약 25%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

<sup>1</sup> 2021 외교 백서, 대한민국 외교부, 2021.12.06



(단위: 명)

자료: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통계본부(2017; 2018; 2019; 2020)

<표 1> 한국의 체류외국인 중 ‘중국인’ 및 ‘중국 조선족’의 비중 (2016~2020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기간은 불과 30년이지만 이러한 짧은 시간에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로 유입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장점으로 또한 한국에서 다양한 직업을 종사하기가 시작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제”라는 제도가 연구자들이 소홀하면 안 된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한국)을 자유롭게 방문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설하여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한국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조선족)들도 일정 요건하에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취업이라는 비자 유효 기간은 5년이며, 1회를 획득하면 3년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허용되는 기업들은 주로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1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등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sup>2</sup>

<sup>2</sup>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고용노동부

그 중에서 특별한 존재가 하나 있다—바로 간병인이라는 직업이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간병인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 1위는 돌봄 등 보건 서비스직이다. 간병 인력의 부족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시작되면서 계속됐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이후이다<sup>3</sup>. 한국은 가족중심 사회일 때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간병을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 구조로 고령화, 초저출산율,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원인으로 간병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4</sup>. 또 한국의 의료 수준의 높임에 따라 좋은 품질인 환자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상승세가 보이며, 시간이 없는 환자 가족을 대신 환자를 간호하고 일상생활을 챙겨주는 프로페셔널 간병인을 종사하는 사람도 이러한 수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조선족들에게 방문취업 비자(H2)를 열어주고 2010년 간병인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주면서 코로나 전에 매년 거의 5만여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업계에서는 조선족 간병인이 3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5</sup>. 한국의 간병인 노동시장은 거의 중국 조선족이 독점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간병인과 같은 특종 직업을 하는 조선족 집단이 언제부터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대규모로 발전해 왔고, 또는 개개인으로 간병인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조선족 간병인 커뮤니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이 질문들의 답을 찾게 되면, 단순히 조선족 자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 논쟁을 불러일으켜도 너무나 중요한 이 존재는 한국인과 함께 한반도에서 기원하고 나서 멀리 중국으로 유입하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인 추이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이슈, 재외동포 취업정책, 그리고 한중 양국의 민간교류를 여러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1.2 기존 연구 검토

<sup>3</sup>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9~2029

<sup>4</sup>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연순 교수, “간병인 제도화 입법 추진”, 충청매일, 2021.10.28

<sup>5</sup> 간병인 급구! 요양병원 조선동포 간병인들 어디 갔나, 주간조선, 2021.10.21

중국 전체 조선족에 관련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는 반면 한국 국내 조선족의 연구는 코로나 전까지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sup>6</sup>.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 교류가 증가하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디아스포라 등에 대한 연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이하 조선족)는 수량이 가장 많은 한국 재외동포로서 이들을 중점인 학계 연구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이 한국 사람들에게 남긴 인상과 그들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면 대답해야 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조선족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 자체,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 등 호칭이 있기에도 불구하고 번역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하며 학계에서는 이 단체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박현옥(2015)에 따르면,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들의 조선은 한반도 출신이라 ‘중국 조선족’으로 이름을 붙였다. 김혜진 (2010)도 ‘Korean-Chinese’ 혹은 ‘Korean ethnicity’라고 조선족을 지칭했다. 하지만 2016년 디플로매트의 보고서에서는 정반대로 “중국계 한국인 ( Chinese-Korean)”으로 언급되는데 아마도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박정선 씨와 폴 Y. 창 (Paul Y. Chang) (2005)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해외동포’ (Overseas Korean) 라고 표현했으며, 또한 이들 중 중국에 영구 거주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중국의 한국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ic group in China) 가리켰다. 한국 정부도 일부 공문서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선호하는 것을 언급하는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정의)에서 재외동포를 어떤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sup>6</sup> 재한 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선주,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1권 4호, 2021.11

따라서 중국 조선족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들과 같이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재외동포가 포함한 특정 대상의 범위는 보선족보다 더 넓다. 필자는 보다 한문으로 ‘중국 조선족’, 영문으로 ‘Korean-Chinese’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한 편으로 ‘조선족’은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은 중국 국적을 가져 앞에 접두사를 붙이면 그들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 조선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시절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지에 관련된 연구도 존재한다. 조선족들이 한국 유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근로자, 초국가적, 다문화적인 결혼 중의 이주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증가했다. 권태환(2005)은 그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의 시작, 시기별로 따라 한국 사회의 분쟁, 그리고 시기별로 한민족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 그는 한·중 수교는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주로 한국의 도시 지역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독특한 민족 정체성은 20여 년 동안의 한국의 이주 문제 중 나타난 문화적 교차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통해 한국에서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도구 뿐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체성이 드러났다. 유(2002)는 한국 국내 조선족 근로자들의 상황에 따라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한·중 간의 인식이 바뀌는 대로 정착된 한국 사회의 유형, 개인주의의 유형, 강화되는 중국 민족의식 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박우(Piao You, 2011)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와서 거주한다는 역사적인 추이를 대충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초부터 2022년 까지였다. 1992년 한중 양국 외교 관계를 맺다는 것을 제외하고, 당시에 조선족과 한국의 교회가 관련이 점차 생겨 ‘종교단체’라는 집단이 있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한 조선족과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구별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되었다. 다음의 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전의 종교적인 영향보다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제를 포함한 한국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박우는 마지막 단계가 2008년부터 이어진 시기라고 판단했고, 이 시기에 한국에 체류중인 조선족 단체는 이미 안정되어 있고, 디아스포라, 이주민 담론 등 화제가 생기면서 조선족과 비롯한 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러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HENG Xin-zhe (2018)는 중국 북방민족대학교 학보에 발표한 ‘조선족의 초국

가적 이동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들은 민족적 그리고 언어적인 연관성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이들의 해외 경험은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조선족의 형성과 발전, 조선족의 다국적인 이동 과정과 한국에서의 처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재외 화교에 관한 연구에서 다국적으로 이동하는 ‘중국 소수민족’ 연구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한 조선족의 체류현황에 관한 연구 중 꽈재석(2012)은 중국 조선족이 한국 체류 규모의 증가와 특정한 정권하의 중국동포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바람직한 동포정책은 반드시 한국 자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했고, 이어 1999년에 시행하기 시작된 재외동포 출입국에 관련된 법률과 취업관리제, 고용허가 등 사항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다음에 H-2 방문취업, F-4 바자, F-5 영주 등 비자 유형을 위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내에 체류현황을 서술했다. 특히 방문취업 비자 중 허가되는 특정한 직업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사회통합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법령 정비는 어떻게 해야 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몇 가지를 제안했다. 저자의 관점에 따라 국제관계, 관념 일치화, 심지어 중국의 대북정책까지 경제상황과 같이 한국의 중국조선족 취업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조선옥(중산대학)과 나의복(중국인민대학)은 2019년에 ‘한국정부의 중국 조선족 부한(赴韓) 취업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 취업 정책의 특징, 이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관련된 조언을 했다. 연대별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의 체류인원수, 취업상황 등 데어터 정보, 변화 유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이러한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김영화 (2014)는 한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체류특징은 전체적으로 불법에서 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취업 정책이 기본적으로 결핍하기 때문에 많은 조선족들이 이산가족 찾기 위한 프로그램 등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후 친척방문 등 방법으로 ‘코라안 드림’을 이루고 싶었던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진입하고, 동시에 상품 도매를 하기 시작했다.

강지혜, 장우권, 선봉규 (2018)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의 단체 형성과 활동 인식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조선족 단체가 한국에서 구성된 이유를 분석하고 나서 조선족 이미지 개선, 향후 발전을 전망했다. 이 저자들의 관점을 따라면,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가 형성된 과정은 주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9년 재외동포법 등 관련된 법률이 나타나기 전이었던 시기는 제1시기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제2시기였고, 2007년부터 중국 조선족들을 끌어준 방문취업제가 도입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십년간에 조선족이 주도한 여러 공동체, 교류 협회 등 기구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났고, 저자가 이 시기는 또한 제3시기라고 주장했다.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영화 ‘청년경찰’은 2017년에 나타났고, 한국인들이 조선족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았으면서 각 위원회, NGO 단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 다향한 의견이 생기기 시작된 이 다원화한 제4시기가 형성된다.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가 존재한다. 윤황, 김해란(2011)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법적과 경제적 즉면의 사회지위를 규명하고, 먼저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한국인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라는 특징을 지닌 ‘3D’업종을 회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에 따라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가 급히 필요하고, 그 중 중국 조선족은 수량이 가장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특종 직업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저자는 재한 중국 조선족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상대적으로 평등한 대우 및 권력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은 아직 많은 편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는 데다가 이러한 다문화시대에서 중국 조선족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고, 그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승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은 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현지 조사를 통해 이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중국 지명이나 특징을 반영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들은 가사노동자로서 취업중인 사람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노동자가 2순위 비중이다. 간병인도 6.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을 따라 계절노동(seasonal labor)을 하는 중국 조선

족 동포 수가 증가하였다.

김유휘(2018)는 한국 노인돌봄 영역에 일하는 중국 조선족 노동자를 위주로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동포는 1990년대 쯤에 한국으로 유입되고, 매우 큰 규모로 점차 단체가 형성했다. 제234회 국정감사 여성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주로 유아돌봄을 하거나 간병인으로 취직했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로 돌아보자면, 한국에 있는 간병인에 관련된 연구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방혜경(2016)은 서비스 경영의 각도에서 조선족 간병인 서비스 과정을 연구하여 서비스 품질을 영향을 주는 요소를 탐색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선족 자체보다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기에 더욱 집중되는 연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간병인과 조선족 간병인이 간병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생활 보조 등 세부 사항을 고려하면 사소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국내 거주 조선족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며, 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업 관련 이론적 연구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 대표적인 연구는 한정우(2016)가 한국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 간병인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한국 수도권 지역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조선족 간병인의 서비스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로서 현장 연구를 통해 조선족 간병인 일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정리하였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서비스 과정은 ‘몸일’뿐만 아니라 ‘감정노동(emotional labor)’도 포함된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몸일이고, 조선족은 아주 노동자로서 근무하는 과정 중 민족, 계급적인 심리 충돌과 언어 사용에 관련된 모순은 감정노동이다. 사람들이 보통 조선족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어가 서툴고 말투가 다른 조선족은 한국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타협과 저항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정신 소모되지만, 중국과의 임금격차로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송인식(2019)은 또한 조선족 간병인의 돌봄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환자의 재이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일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저자가 주장하고 먼저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의 노인 돌봄서비스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품질 평가하는 방식을 이론적인 도구로 분석함으로 이용자들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 등을 서비스 과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핵심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했고,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 중 조선족 정체성, 역사적인 이동 변천사, 외국동포 노동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조선족 간병인이라는 이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히 그들의 이주사, 발전사 등 역사적인 추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조선족 간병인 단체는 이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 연구는 그들의 업무하는 과정, 서비스 질 등 복지, 노동 자체에 관한 연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해서 간병인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경제활동 집단의 형성하는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는 역사적인 맥락을 자세히 정리해야 다문화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특수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단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1.3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 남성은 종사하는 직업은 주요 건설업 노동자, 여성의 주요 직업은 가사노동자, 식당일 종사자와 간병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조선족과 이주 목적국 주민인 한국인이 언어의 유사성과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경제활동은 계절노동과 연계되는 건설업과 가사 노동자·간병인의 돌봄노동이나 음식점 종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경제활동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본부와 국가 통계 포털(KO-SIS),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 등 자료를 활용하고 원래 일이 힘들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간병인을 비롯한 직업을 종사하게 되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경제활동의 역사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다. 또한 한국 대전에 위치한 간병협회에서 수년간 간병인 일을 하였던 조선족, 다른 간병인을 모집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족들과 심층면담을 하는 것으로 통해 조선족 간병인의 구직과정, 일상생활, 일하는 과정, 개인 고민 등 정보를 얻어졌다. 이 면담은 주로 체계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와 같은 것으로 조선족 간병인 커뮤니티의 발전, 특징, 이 중 개개인의 이야기 등 알게 되고, 조선족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으면 한다.

본 연구는 총 4 장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 1 장에서는 문제제기와 선행연구 고찰을 하고 제 2 장에서 학계에서 조선족의 정의, 한국으로 오게 된 과정, 불법 체류부터 합법 체류까지의 길, 조선족(중국 동포)전문 비자 유형 등을 설명하여 한국 체류 중국 조선족의 전체적인 역사 추이를 검토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 조선족 취직 등 경제활동 하는 특징을 연대별로 고찰하고, 이어서 집중적으로 조선족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특종 직업—간병인을 살펴보았다. 조선족 간병인 단체의 형성과정 그리고 심층면담 대상자와 대화로 조선족 간병인 단체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여기까지 한국인 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판단한 것이였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은 이 연구의 목적을 충분 반영하여 앞에 언급했던 선행 연구,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의 연구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향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제 2 장 역사적인 추이

### 2.1 조선족이라는 존재

조선족은 어떠한 존재인지 탐색하고자면 우선 이 명칭이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이 단체의 기원을 알아본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朝鮮族)이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같은 혈통을 지닌 한반도의 후손이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신인 이들은 냉전 끝난 후 한국의 경제 성장 등 원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 많이 이주하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이주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있어 현재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 되었다.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조선(1392–1910)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1910–1945)까지 지속된 한반도의 마지막 왕조를 가리킨다. 청나라 때 사람들은 지리 우세로 조선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고,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의해 조선족은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조선족에 의해 널리 쓰이지만, 일부 조선족, 특히 한국 젊은 세대들은 중국 동포 같은 다른 용어들을 선호한다.

우선 조선족은 한반도와 관련이 있기에 불과하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국적의 정의에 따라 ‘중국 국민’으로 인식된다. 중국 민족사무위원회<sup>7</sup>는 또한 조선족을 ‘중화민족’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조선족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국경을 넘는 민족(跨境民族)’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이동, 각 지역에 분포,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점차 한반도 주민과 다른 단체로 되 있고,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중국 정부의 여러 번 정책 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중화민족’ 중의 하나로서 존재한다<sup>8</sup>.

조선족은 “북방 원저우인”으로 불리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이주한다. 이주는 조선족 여성들이 주도(박광성·2006:183)하고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해 이주사회에서 주로 식당일을 하며 가족돌봄노동자로 일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 이 이른바 “불법” 이주노동자나 사회적으로 정장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 체류자들이지만 실제로는 진출 국가의 노동 부족으로 인해 한국 국내 장기체류자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저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사실상 이주경제에 종속된 구성인자나 불법이라는 틀에서 처리돼 동등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sup>10</sup>. 그들이 오랫동안 이주 사회의 종속이나 한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에스닉(ethnic) 존재로 여겨져 왔다. 조선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인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한반도와 동일시된다(허명철, 2003).

많은 한국사람들도 중국 조선족을 중국사람으로 여긴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곽승지가 지적했듯이 조선족은 중국 동북 래오닝, 지린, 그리고 헤이룽장 3성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라서 연구 중 조선족이라는 연구 대상은 역시 중국인이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비슷한 혹은 같은 전통문화, 언어 등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와 관련된 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더 많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정체성의 관점에서

<sup>7</sup> 中华人民共和国 国家民族事务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国家民族事务委员会, 约称: 国家民委)는 국무원의 한 부서이며, 중앙통전부의 명령을 받고 중국의 민족정책, 민족이론, 민족교육 업무를 감독하고 실시하는 부서이고, 민족 자치지역을 이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sup>8</sup> 당대 조선족 인구 발전 현황, 리옌, 중국민족문화자원고, 2019.04.09

<sup>9</sup> 新华网吉林频道, “北方温州人”的故事, 2002. (중국 신화망 길림채널, “북방 원저우인의 이야기”)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인은 장사가 능숙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여기는 이 비유로 조선족들이 중국 북쪽 지역에 장사 잘 하는 단체로 묘사했다.

<sup>10</sup> 이미애.(2021).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불법적 위치’ 재전유하기: 프랑스의 중국 조선족 연구. 한국사회학, 55(1), 131-178.

보면, 개인마다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김한울·김현준·이강현·양경은은 한국에 체류중인 조선족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으로서의 가진 이중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상으로 말하자면,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중국, 혹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 더 가까운 국가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을지는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많은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동일한 혈통"과 "조선의 모국"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향하는 이주를 귀국으로 간주하고, 그들 자신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적 유대의 개념을 강하게 느낀다. 한국 화교들이 당연히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처럼, 그러므로 원래의 고향(중국)과 "생물학적 부모"(이 경우에는 한국)로 돌아가는 것은 민족적 유대감 때문이며 따라서 법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조선족 이민자들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과 "외국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는다. 조선족들은 다문화 정책과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수교 후 재한조선족의 규모와 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면서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이들을 둘러싼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결혼이민, 사회적인 지위, 문화 접근성, 민족과 국가 정체성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중에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주민 노동자, 불법체류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 특정한 단체 중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애사, 경험을 분석해 혹은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및 평가에 집중해서 연구했다<sup>11</sup>. 콜베(Kolbe)는 이러한 이주 행위가 행위주체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대상국에 대한 인식은 현지인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도 있는 판단을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이에 따라 자신의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는 것을 선택한 조선족은 순수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는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이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요인이 각자 다

<sup>11</sup> 유명기,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韓國文化人類學』 제35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sup>12</sup> M. Kolbe and M. M. Crepaz, “The Power of Citizenship: How Immigrant Incorporation Affects Attitudes towards Social Benefit,” Comparative Politics Vol. 49, No. 1(2016), pp.105-123.

른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에 “귀환”해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라도 이들의 정체성이 한국 쪽과 더욱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측은 우려의 시선으로 보지만 중국 측은 기대의 시선으로 본다. “우리”라는 동류의식, 즉 정체성은 “그들”이라는 이류(異類)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재한 조선족의 이어 한국에 와서 한국과의 재회를 통해 정체성은 형성된다. 이에 관련 연구는 재한조선족을 둘러싼 한국의 사회 환경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이로 인해 생긴 차별적 시선이 그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덜 있어야 중국에 편향된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아래 국민이 아닌 상대에 대한 배타성 극복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인지는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이 한국에 더 기울일 것이라는 보장은 여전히 장담할 수는 없다.

관련 연구는 재한조선족과 한국의 관련된 점, 이주 조건 그리고 근무 환경에 주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결국 한국사회의 제노포비아와 이들에 배제성은 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한조선족은 이 글로벌화시대에서 초국적으로 이동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계기와 방식으로 근무, 혼인, 방문, 유학 등의 목적이나 재외동포, 각종 형식의 체류자격, 귀화로 국적취득자 등 그 신분을 취득했다. 하지만 조선족의 이러한 초국적인 한국 이주 및 정착은 결코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은 한국 사회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중국을 회상하고 또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여러 방식을 통해 한중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한조선족의 삶과 사고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의 비교 대상으로 존재하는 선택요인 뿐이다. 즉, 재한조선족 정체성의 형성 및 변화에 자주 발생하므로 한국과 중국은 등가의 객관적 원인이며, 그들의 정체성이 중국에 편향 된다는 것은 중국에서 기대할 만한 이익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인 우세에 차지한다는 뜻이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중국에 관련 역사 및 정책에 대한 분석하여 재한조선족 정

<sup>13</sup> 김진열·조예신, “재한조선 족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대한 고찰: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7권(2018); 정희옥·윤종빈·김진주, “재한조선족의 사회신뢰: 이주국과 본국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2017); 俞少賓·崔興碩, “身份認同轉變的影響因素探析—基於16位在韓朝鮮族移民的結構式訪談,” 『華僑華人歷史研究』 第4期(2012); 周建新·黃超, “跨國民族勞務輸出中的族群認同與國家認同-以龍井市龍山村S屯朝鮮族勞務輸出韓國為例,” 『思想戰線』 第2期 37卷(2011).

체성에 관한 또 다른 동인, 즉 중국요인을 살펴보았다. 일부 재한조선족은 한국으로 이주, 취업,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중국을 선호하고, 중국으로부터 조선족은 중국 56의 민족 중의 하나라는 그러한 신분을 인정받았고, 또한 소수민족 등 신분으로 중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회득할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2007년도 동북3성을 관할하는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의 동북 3성에 체류중인 조선족 수가 6년 뒤인 2013년 약 17만여 명이 감소하면서 북경, 광주, 상해 등 대도시로 이동한 것을 보고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정부의 공식통계는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게도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호적이 그대로 출신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른 한 편 한국의 경우는 국내 여러 공관이 집계하는 통계 데이터 등 자료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통해 한국 사회로 진입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한 민족으로서 한국과 융합하는 것을 주장한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혈통, 역사,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족들의 주장은 단순히 그들의 항수(乡愁)를 불러일으키는 조국에 대한 견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들은 조국과 디아스포라 사이의 계층 차이가 뚜렷한 이러한 관계에 저항하고, 조국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중 신분을 사용한다.

조선족들은 민족성이 뚜렷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숙, Yi-Chun Chien (2021)은 민족지리학적 데이터에 대한 주제 분석에서 나온 세 가지 테마를 제시하여 이주 주체 구성을 기반으로 한 청구권 작성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족들은 한국에 빛진 것이 없지만 자격이 있는 특별한 이민자이다;

(2) 조선족 이민자들은 그들의 통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sup>14</sup>

(3) 조선족 이민자들은 완전한 시민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위치한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족 이민자들은 순수한 외국인이나 완전한 한국 국적자인 원주민이 아니라, 합법적인 구성원인 특별한 유형의 이주자로서 그들의 지위를 높이고 이주 주체성을 다시 구축하려는 존재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중국어와 조선어문을 사용하는 중국 국적자인 조선족으로서 이들의 ‘이중 정체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순수한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족적 지위를 정당화하게 해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는 이주 한국인 및 중국인에 종속되어 일하는 하위서비스 계층, 즉 3등 국민(한성훈, 2013)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주 보이지만, 이것은 민족·계층적 위계의 동시 작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데, 사실상 이 위계들은 이주사회의 법과 정책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이정은, 2013; Seol and Skrentny, 2009; 윤영도·신현준·이정은·조경희, 2013)이중정체성 담론이 그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반면, 중국에서 정체성 담론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결과로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 중국 내외로의 이주는 중국 한족, 한국인, 외국인과 섞이는 삶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고, 문화의 이중적 성격을 주장하는 조성일의 논지에 대해 중국 조선족이 디아스포라가 아닌 중국의 입장에서 완전한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일 뿐이다. 이에 김호웅 (2010)은 호미 바바의 말을 빌어, 조선족은 중국의 한족, 기타 소수민족, 남한이나 북한 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와도 구별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허명철(2003)은 중국 조선족은 정치·경제적 측면의 중국화, 문화적 측면의 모국(한국)문화를 간직한 변연문화를 가졌다고 했다. 박광성 (2010)은 이들이 ‘지역적인 집단’에서 ‘초국적인 시민집단’으로 급변신한 집단이라 본다. 중국 국내의 조선족 연구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변화에 대해 적극 논쟁 중인 상황이다.

---

<sup>14</sup> 원문: (1) Korean Chinese are special migrants who do not owe South Korea anything, but are entitled; (2) Korean Chinese migrants do not need to prove their integration; and (3) Korean Chinese migrants are positioned between full citizens and foreigners., 출처: Yang-Sook Kim, Yi-Chun Chien.(2021).“We Are Not Foreigners”: Constructing Migrant Subjects through Korean Chinese Migrants’ Claims-Making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26(2),11-40.

중국 동북 3성에 기원한 중국 조선족은 일제 강점기 만주국 체제 하에서 생존했고, 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존재해야 했다. 만주국 체제 하에서는 일제의 압제와 일본식 교육을 감내해야 했고, 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과 중화민족으로의 동화 강요를 감내해야 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특별한 집단을 분석할 때 많은 영향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정체성은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닌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sup>15</sup>. 즉, 시대적 그리고 환경적 조건이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결정한 것이다.

## 2.2 조선족이 한국으로 유입하게 된 과정

조선족은 중국 동북 지역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연변(옌볜)자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다. 2020년의 중국 인구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16번째에 해당되는 인구 170.2479만명의 민족이다. 허명철(2003)의 연구에 따라 대부분의 토착 소수민족과 달리 중국 조선족이 한반도에서 특정한 역사로 인해 중국으로 유입하고 중국 국적에 취득한 이주민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개척(開拓)민족이라는 사람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국가 통합에 따른 국경 개념의 약화, 세계화의 촉진으로 이주는 이미 이 글로벌 시대의 한 형태가 되었다. 높은 이 창출되는 영역에만 투자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논리 아래, 국가의 복지 예산과 기업의 수당이 줄어들고 노동조합 등의 제도적 창치들이 축소됨에 따라 (부르디외, 1998, 강수돌, 2012). 과거와 다른 점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특별한 기술이 거지지 못하는 생계형 근로자들이 고국에서 멀어지고 다국으로 이주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족은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매우 풍부하고 긴 발전 역사를 지닌다. 이현정(2001)은 조선인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유입하는 것이 약 13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조선의 흉년과 1883년 만주지역에 대한 청(淸) 나라 정부

<sup>15</sup> 김윤태.(2021). 중국동포 다중정체성의 형성: 문화대혁명 시기 한민족 정체성의 소실과 복원. *중국연구*, 86, 115-140.

의 봉금령 해제가 맞물리면서 조선인의 중국 동북지역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청나라 정부의 동화 요구와 당시의 조선 정부의 송환 요구라는 양국 상호간의 압박 속에서도 이주 조선인은 중국 동북 각 지역에 생존 기초를 만들며 발전하였다<sup>16</sup>. 1909년에는 “한민(韓民)”의 현지 정착을 명시한 “간도협약(圖們江中韓界務條款)”은 동북 조선인이 한중 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sup>17</sup>. 1945년 8월 한국이 광복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조선인’에게 귀국의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53만을 시작으로, 1946년 18만, 그리고 1947년 10만 조선인이 한반도로 향해 돌아왔다. 하지만 전체 동북 조선인 중 과반이 넘는 조선인 (약: 100만명)은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선택했다<sup>18</sup>.

정권이 바꾸면 해당 정책은 이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이 것은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국의 땅에 살고 있는 조선인도 그렇다. 일제는 만주를 식민화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된 조선인의 동북 정착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중국 국민당은 이들을 한국으로 복귀시켜야 할 “한교”(韓僑), 즉 한국의 교민으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착을 부정했다. 이에 중국 국민당은 일본 패망 후 곧바로 동북 조선인을 보고 “송환을 명령하고 그 재산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고<sup>19</sup>, 1946년 “한교처리 임시조치 방법(處理韓僑臨時辦法)”, “동북지역 한교 처리통칙(東北韓僑處理通則)” 등 법칙을 통해 동북 조선인의 자산을 “일위(日僞, 일본 통치하의 만주국)”의 재산을 적산(敵產)으로 간주하고, 무직이나 당시의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는 모든 한교를 집단 귀국시킨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는 “한교”는 동북조선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sup>20</sup>.

<sup>16</sup>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pp.75-107; 孫春日·沈英淑, “論我國朝鮮族加入中華民族大家庭的曆史過程,” 『東疆學刊』 第23卷4期(2006).

<sup>17</sup> “圖們江中韓界務條款,” 『中外舊約章彙編』 (第二冊)(北京: 三聯書店, 1959), p.601.

<sup>18</sup> 李海燕, “從國家、社會和族群的視點來看朝鮮族的形成(1945-1960),” 『SENRI ETHNOLOGICAL STUDIES』 90(2014), p.245.

<sup>19</sup> “令其返回, 財產依條令辦理,” 『中國朝鮮族歷史足跡』, 編輯委員會, 『中國朝鮮族歷史足跡叢書(五)勝利』 (北京: 民族出版社, 1992), pp.56-567.

<sup>20</sup> 薩豐裕, “抗日戰爭勝利後中國共產黨解決東北朝鮮族國籍問題的過程,” 『延邊大學學報』 第45卷2期(2012), p.120.

국민당이 소수민족에 대해 매우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 때의 공산당은 국가 통일과 민심을 모음의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의 핵심은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권리인정과 “연방”의 건설이었고<sup>21</sup>, 심지어 토지개혁, 중국 소수민족이라는 신분을 선택하더라도 조선 재외교포 신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 및 소수민족에 의한 자치(自治) 정부 운영에 각 소수민족 단체는 환영했고, 이는 나중에 대다수 소수민족이 중국 공산당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약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 국내 인민공사운동, 문화대혁명 등 역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의 중국 정부는 세웠던 소수민족 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어렵고, 정부의 핵심 정책은 전체 국민의 통합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시기의 중국 조선족은 자신의 고유 민족 전통과 근현대 중국에게 받는 영향이 병행하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족의 정체성이란 다른 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중 정체성, 또한 다른 경험에 따라 혈통,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원인으로 인해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주 후 중국반제번봉건투쟁, 국공내전, 등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1952년부터 시행한 소수민족정책과 북한의 지원으로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다 (희명철, 2003).

1980년대 후반,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시작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의료산업의 확대가 이어졌지만 보통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른바 '3D'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꺼리면서 이 분야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 이어졌다. 이 때부터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력은 이 부족한 노동력 빈칸을 채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개혁개방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도시-농촌 이원화 체제를 지원하던 “후커우<sup>22</sup>” 제도가 폐지됐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있었던 조선족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주했다(이미애, 2020년:79).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했고, 불과 30년 만에 계속 증가한 인구수로 한국 국내 신흥 디아스포라 그룹이 됐다 (박광성, 2008).

<sup>21</sup> 최승현, “중국공산당의 ‘연방제론’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1집 4호(한국동북아학회, 2016), p.21.

<sup>22</sup> Hukou (戸口), 주민등록과 비슷한 호적의 개념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 지리적 접근성, 언어와 문화의 적응 난이도, 이주 준비에 들어갈 비용, 이주지 임금수준과 환율 상황, 구직 난이도, 이 국가의 종합적인 이민, 외국인 체류정책과 이주노동자 혜택 등 다양한 요건이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편인 일자리, 중국보다 높은 임금, 언어와 문화적인 친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불확실성, 낮은 규모 조선족 커뮤니티 존재 등의 이유로 한국 이주를 선호한다. 2005년 연변지역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출국자의 85%는 한국에 이르렀다<sup>23</sup>. 이들을 제외하고, 연관성 유무, 연령 및 업종 등 한국의 종종 제한적 이민정책에 따라 한국 이주의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더 큰 소득을 목적으로 조선족들이 독일 등 유럽으로 이주의 흐름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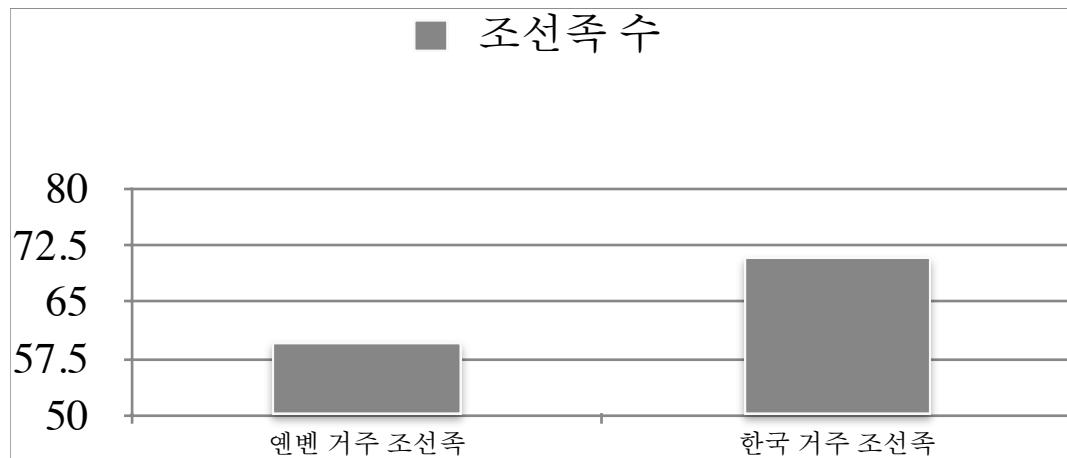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전까지 조선족과 교류하는 대상은 주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시기는 1980년대 중국 개혁개방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신 중국 건국 초기인 1950년대 조선족의 교육 수준과 문화 발전이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교육, 문화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허명철, 2003). 즉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되기 전이었던 1970년대까지 그의 역할은 조선족의 정체성 발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다(임채완·사공복희·장우권·김태운·이명규, 2005).

개혁개방, 급속한 세계화,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와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가 조선족 이주를 촉진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선족들의 중국 내 이주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농촌을 떠난 한국인들은 중국의 해안 지역으로 상징되는 대도시, 농촌 근처에 위치한 도시,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선진 도시로 향했다. 2005년까지 지난 15년간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30만 명의 조선족들이 중국 연해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2006년까지 약 30만 명이 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2009년경에는 중국 연해지역 50만~55만 명, 한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 60만~65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총 110만~120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국 국내 60만명, 미국 8만명, 일본 6만명, 러시아 3만명 등 약 80만명이 베이징·상하이·톈진 등 중국 국내 대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됐다. 선양·영일·장춘 등 동북 3성의 대도시로의 이주를 포함하면 사실상 조선족의 대부분이 농촌에 고향을 떠났다는

<sup>23</sup> 김현미.(2008). 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 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 39-77.

뜻이다<sup>24</sup>.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조선족이 인구의 약 97%가 중국 동북 3성을 거주지로 거주했으며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이주 시대가 시작된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년 후인 2000년에는 조선족 약 92%가 동북 3성에 거주했고, 2010년에는 88%가 거주했다. 1990년부터 10년 동안 약 12만6000명이 이주한 데 이어 10년 동안 20만5000명, 20년 동안 33만 명의 조선족이 이주한 셈이다.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2007년 환발해만 (环渤海湾) 도시였던 칭다오(12만 명)·웨이하이(3만 명)·옌타이(2만 명)·산둥성(18만 명)·베이징(68만 명)·톈진(68만 명)·다롄(3만 명) 등에 39만~45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었다<sup>25</sup>.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지난 10년간 1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약 59.7만 명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계속 증가해 중국 연변보다 많은 70만 명을 넘어섰다.



(단위:만명)

자료: 중국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 및 한국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통계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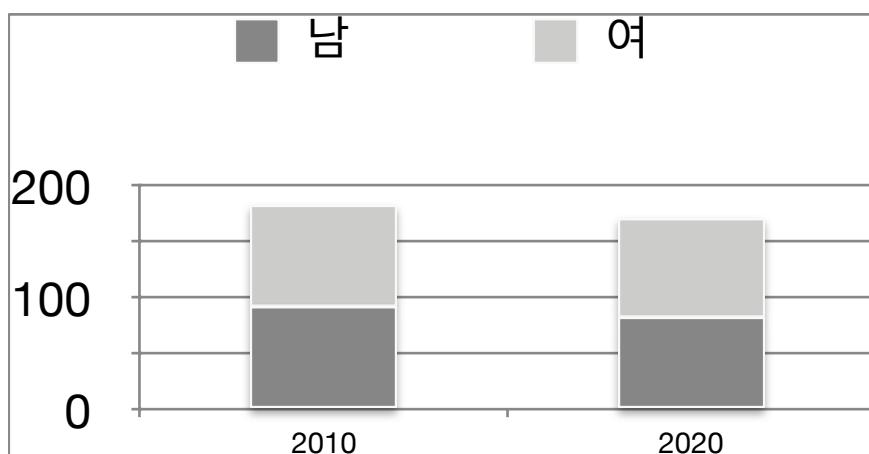
<표 2> 2020년 1월 기준으로 예볜과 한국 거주 조선족 수 비교

<sup>24</sup> 박광성,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제21호

<sup>25</sup> 류춘욱·김병호(2007), 「조선족 사회문제의 현 실태에 대한 사고」, 중국 조선족 인구 문제와 그 대책, 민족출판사 12쪽.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중국 동북신문망과 라오닝신문은 2020년 말까지 현재 중국 내 조선족 수가 170만 2,479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고, 그 중 남성은 83만 1107명, 여성은 87만 2372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4만 명으로 더 많았다. 이는 2010년 이전 인구조사 당시 1,839,29명에 비해 128,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줄어든 조선족 인구는 남성 8만 428명, 여성 4만 8022명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조선족 인구는 2000년 최고치 (192만 3842명, 5차 조사)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내 조선족 수는 2010년 180만 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170만 명으로 또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몇년 내 160만대 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족 수량이 급감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중 수교 후 한국 국내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1월에 70만 8,000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족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엔볜(59만 7000명)보다 10만명이 더 넘는 규모다.

중국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볜자치구의 수도 엔지(연길)시 전체 인구 중 한족 인구는 37,5506명으로 54.73%를 차지하고, 조선족 인구는 292,263명으로 42.60%를 차지한다. 이 데이터는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한족 인구는 10,399명으로 36.49%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조선족 인구는 17,185명으로 불과 6.25% 증가했다.



(단위:만명)

자료: 중국 제6차 및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 중 국내 거주 조선족 상황

<표 3> 2020년 기준으로 중국 거주 조선족 10년 전과 비교

조선족들은 주로 중국 동북 지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거주한다. 지린성 옌볜은 조선족이 많아 조선족 자치주<sup>26</sup>로 지정돼 있다. 최근 조선족들이 대규모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주하면서 옌볜 전체 인구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1953년 조선족자치주 지정 당시 70.5%에 달했던 옌볜 조선족 인구 비중은 최근 30.8%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조선족자치주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1993년 중국 국가사무위원회가 발표한 조례에 따르면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지역에서 '민족지향'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 추세라면 옌볜 조선족 비율은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이 수십 년 간에 조선족의 대규모 이주에 대해 민족 정체성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차 나오고 있지만, 어떤 학자가 다른 의견을 발표했다. 박광성 (2006)은 이러한 분산으로 거주하는 상황은 이 단체의 해체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조선족들이 탈지역이고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성은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그들의 삶에 있었던 변화를 꼽는다. 첫째, 조선족들의 이동이 경제활동을 위한 가족분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생활세계의 영역 변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 지역적 가정을 단위로 생활이 가능했고, 이 점이 사회적인 해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다음에는 이 단체 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작용함에 따라 기존 공동체는 해체되지 않고 진입점에서 회복되었다<sup>28</sup>.

조형재 (2015)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조선족의 이러한 대규모 이주 행위는 대이주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대이주 현상이 현재진행형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족이 가깝든 멀든 대이주의 행렬에 참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6년 정부가 가족 연대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국 문화로부터 한국 사회의 핵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형재의 주장은 탈지역 공동체 형성

<sup>26</sup> 중국의 자치주(自治州)는 소수 민족이나 원주민 등 주민에게 자치가 인정된 주(영어: prefecture)를 가리킨다.

<sup>27</sup> "30년 만에 70만명 넘어왔다"...中엔볜보다 韓에 더 많은 조선족,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2.01.20

<sup>28</sup>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185~187쪽.

가능성은 한인사회의 내부 노력에 달려 있지만 그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들은 중국 해안도시나 동북3성 지역, 혹은 다른 외국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능동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족 전문가 그룹은 이주 대응 노력이 잘 이뤄졌고, 새로운 거주지가 유지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이들은 과거 한국 국민과의 협력이 매우 잘됐다고 보고,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조선족 수가 현재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요건이 되면 중국어나 영어보다 먼저 자녀에게 한국어(조선어)를 가르칠 용의가 있었다<sup>29</sup>. 이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향후 지원이 늘어나면 한국어, 역사, 문화 등 교육사업과 청소년 방문 초청사업, 중국 국내 소수민족 지원사업, 장학사업, 국내 지원사업 등에 집중되기를 희망했다.

위와 같은 역사 추이를 따르면, 재한 조선족의 다국적 이주역사는 크게 분석하면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한반도에서 중국으로의 이주

2. 중국에 거주

3.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4. 한국에서의 생화

이상의 이동 동선은 재한 조선족의 능동적 선택과 더불어 그들의 발전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고려하면 안된다. 조선족은 대어날 때부터 벌써 이중적 혹은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한 쪽을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남아있는 대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글로벌·시대에서 이러한 다중 정체성에서 각 대상에 대한 정체성의 범위와 그 깊이는 인식 주체가 처한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행위자의 기대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자에게 있어 선택은 매우 곤욕스

---

<sup>29</sup> 조형재.(2015).중국동포의 대이주 현황과 바람직한 지원 방안.재외한인연구,(36),69-106.

럽기도 하다<sup>30</sup>. 이러한 관점에서 재한조선족이 겪고 있던 정체성 혼란 문제는 국경을 넘는 과정민족, 디아스포라 등 여러 방향으로 발전한다.

### 2.3 재한 조선족 체류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5월 수정한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총 30개 넘어 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 시장에서 이주민들은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찾으려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행위주체라는 이들이 처한 당시의 사회적 조건과 기대하는 이익에 달려있다<sup>31</sup>.

목차		
1. 외교(A-1)	13. 취재(D-5)	25. 특정활동(E-7)
2. 공무(A-2)	14. 종교(D-6)	26. 계절노동(E-8)
3. 협정(A-3)	15. 주재(D-7)	27. 비전문취업(E-9)
4.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있음)	16. 기업투자(D-8)	28. 선원취업(E-10)
5. 관광통과(B-2)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있음)	17. 무역경영(D-9)	29. 방문동거(F-1)
6. 일시취재(C-1)	18. 구직(D-10)	30. 거주(F-2)

<sup>30</sup> 최승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80권, pp. 123-124.

<sup>31</sup> 최승현.(2020).재한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중국 요인 분석.*한국동북아논총*,25(4),27-45.

목차		
7. 단기방문(C-3)	19. 교수(E-1)	31. 동반(F-3)
8. 단기취업(C-4)	20. 회화지도(E-2)	32. 재외동포(F-4)
9. 문화예술(D-1)	21. 연구(E-3)	33. 영주(F-5)
10. 유학(D-2)	22. 기술지도(E-4)	34. 결혼이민(F-6)
11. 기술연구(D-3)	23. 전문직업(E-5)	35. 기타(G-1)
12. 일반연수(D-4)	24. 예술행(E-6)	36. 관광취업(H-1)
38.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매뉴얼(32, 33, 37번 등 포함)		37. 방문취업(H-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2022.05)

#### <표 4> 체류자격별 대상 외국인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이상으로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에서 가능한 전부 체류 자격이며, 위 <표 4>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특별히 분류되어 있고 별도로 전문 안내가 있는 것이다.

이 매뉴얼을 보면 외국국적동포 특유한 비자는 총 3개 다음과 같아:

1. 동포방문(C-3-8) 사증
2. 방문취업(H-2) 사증
3. 재외동포(F-4) 사증

이상은 조선족이 외국국적동포의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한국 체류 자격이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들이 영주(F-5), 방문동거(F-1)를 신청할 때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기타 외국인과 다르다.

이 중 동포방문(C-3)은 단기방문제(C-3)라는 큰 유형에 분류되고, 친척 방문 비자에 속한다. C-3-8 비자는 2014년부터 60세 미만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고<sup>32</sup>, 한 번에 최대 3개월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015년부터 원래의 3년에 5년으로 변경되었다. 동포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일부 조선족들이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나 취업교육을 받는 후 방문취업제 H-2 비자로 전환한다.

한국에서 합법으로 취업하게 된 조선족들이 주로 H-2 비자나 F-4비자를 소지한다. H-2비자는 18세 이상 중국 및 CIS 국가<sup>33</sup> 국적을 가지는 동포들에 대한 한국으로 자유입국과 취업지원을 위한 비자다. 이 비자는 3년간 유효기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필요시 상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 중 허용업종에서 작물 재배, 재조, 식당, 건설, 개인 간병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취업 비자를 또한 친족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sup>34</sup>.

조선족 취업에 가장 유리한 비자는 재외동포(F-4)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주로 한국한에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사람에게 발급하고, 예를 들면,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각종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한국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초중고 재학 등에 대해 발급한다.

언어 방면에는 H-2비자와 F-4비자는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요구가 많지 않고 (예: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등), 60세 이상인 사람 등 면제 대상이 있는 것이다.

---

<sup>32</sup> 한국 “특정강력범죄의 처절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싱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이 가능한다,

<sup>33</sup>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獨立國家聯合, 독립국가연합)은 소련 해체로 인해 독립국가가 된 구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로서 결성된 기구로서, 국가 연합(Confederation)으로 분류된다. 2022년까지 CIS 정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 총 9개 있다.

<sup>34</sup>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자료, 2022.05 개신

집단적 차원에서 보면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등 법적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행위주체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1월 말까지 한국 국적취득자는 1,342명이고, 이 중 귀화가 1,009명이었고, 귀화자의 46.7%(471명)는 중국 출신이다. 이와 반대로 재외동포(F-4)자격과 영주(F-5) 등 체류 자격을 취득한 조선족은 많이 나타났다.

(단위: 명)

2020년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체류자격별 입국자				
유형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계	54244	13663	52	53258
남	29038	8173	20	36062
여	25206	5490	32	17196

자료: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KOSIS (검색일: 2022.05.03)

<표 5> 2020년 한국 체류 조선족 체류자격(일부)별 입국자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조선족이라도 이 중의 상당수는 국적신청을 대신 재외동포 체류자격 혹은 영주자격, 방문 취업 자격을 신청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중

국국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영주자격 취득에 만족하면서 중국국적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위 표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관련 통계는 대부분의 재한조선족이 후자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1990년대부터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조선족의 인원수는 639,575명에 이른다. 국민과 민족이 하나의 개념과 제도로 자리를 잡은 독일과 달리(Joppke, 2005년), 한국에서는 국민(국적을 가지는 사람)과 민족(한민족, 한국 국내 “재외동포”도 한민족에 속한다)으로 분별되어 있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처음 들어갔다. 1999년에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출입국을 규제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정책인 재외국민 출입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였다. 이영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대부분 중국이나 구소련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은 한국 정부 수립이 명시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04년 3월 5일의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조선족들에게도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이 발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재외동포’(Overseas Korean)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F-4 비자가 주어져 근무와 무기한 국내 거주가 가능하다. F-4 비자 보유자는 이 정책이 나타날 때 저기술 육체노동 등 일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2010년 정부는 돌봄 분야에 예외를 두었다. 그 때부터 F-4 비자 보유자가 가사, 육아, 환자 돌봄 (즉 본 연구의 연구주제 간병인), 복지 시설 보조원 등 4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근로자는 3년 이상 같은 고용주에 근무할 경우 영주권(F-5 비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재외동포를 후손과 함께 이주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범주에서 조선족을 제외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전 조선족 1세대 중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따라서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이 법률에 대해, 그리고 공평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를 착취한 조선족들이 투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근로자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법 개정을 약속하고 과업은 일단락되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입국과 출국에 관한 법률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국과 구소련 재외동포의 법적 범주에서 중국 재외동포와 구소련 재외동포를 배제하는 것을 법의 위헌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이나 구소련 출신 재외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도 5년 간 유효한 재외동포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하는 근무비자 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조선족들에게 또 하나 다른 종류의 F-4 비자(재외동포)를 부여하여, 그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5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 해 왔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각 부처간의 간 의견조정을 거친 후에 포함되었다(Lim and Seol, 2018).

## 제 3 장 조선족 경제활동 커뮤니티의 특징

### 3.1 조선족 경제 단체의 형성 과정

조선족들이 1984년부터 “친척 방문”이란 계기로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온 조선족들이 대폭으로 증가했다. 1988년 한국 올림픽은 중국에 있었던 조선족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중국의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그들은 “코리안 드림<sup>35</sup>”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진출을 대규모로 했다. 친척 방문길에 한약을 판매하며 한국 경제시장에 첫 단추를 낀 조선족은 이후 3D 일자리 등 서비스업으로 더 넓은 활동 영역으로 매진했다. 하지만 몇몇 폭력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조선족을 동포보다는 이주노동자로 분류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1999년 시행된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조선족들은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과 2007년 고용허가제, 2010년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제 덕분에 손쉽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법적 지위도 높아졌다. 과거 건설현장 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주류였던 조선족은 높아진 법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조선족

---

<sup>35</sup>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 잘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 ‘아메리칸드림’에 빗대어 나온 말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흔히 쓰인다.

사회의 변화는 조선족 영업자와 기업가 등을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선족은 한국에 정착할 때 보다 서울과 경기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박세훈·이영아 2010년).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와의 친숙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근로자들이 단순히 저임금 체력 노동을 하는 것보다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이 종사했다. 이러한 서비스 사업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에 진출하는 것과 달리 조선족들은 대도시의 값싸고 교통이 좋은 주거지역에 몰려있다.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는 이민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사회적 시선은 싸늘해도 이들은 자신이 처음 정착했던 곳에서 살려고 했다. 2021년 5월 기준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등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2.9%)였으며 서울(21%), 인천(5.9%) 순이었다. 이는 이민의 59.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시군구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안산이고 화성 시흥 구로구 영등포구 부천시(출입국 통계는 2021년 10월 기준) 순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중서부에 위치한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끈 도시로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수가 조사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민 인구가 3배 증가한 곳이다. 현재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영업자가 생기고 있다. 한국에 오게 된 조선족은 처음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는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 등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이 범위가 이웃한 경기도 수도권으로 이어진다. 조선족이 이처럼 밀집지역과 상권을 확대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이들의 이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한국은 이들의 경제적인 수요가 만족시키고, 국민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유출·입 정책은 이들의 삶을 구조적으로 생산한다. 예를 들면,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 주로 식당고용인,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서비스 직종을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민 단체로서, 조선족 이주자들은 많은 한국 사회 운동가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이끄는 중요한 이주 권리 운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한반도 혈통을 지니지 않는 순수한 "외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민족"으로 주장

<sup>36</sup> 정선주.(2021).재한 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현대사회와다문화,11(4),191-225.

하였다. 한중 수교 후 이 삼십 년 동안에 조선족 이민자들은 점차적으로 한국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자신들을 다른 외국인 이민자들과 다른게 정의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후손 중 82.9%를 외국국적동포 비자 (H-2, F-4 등)로 한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저기술 (low-skilled) 직업의 다양한 임시 노동 허가증을 가진 이주 노동자 27명 중 조선족들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F-4 비자 보유자 37539명을 추가하면 저기술 직업의 이주 노동력의 41%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족 커뮤니티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으로 되어 있다<sup>37</sup>.

한국 통계청은 C-4, E-1-E-7, E-9-E-10, H-2 등 비자 소지자를 "이주민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F-4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고용주에게 묶여 있지 않아 이주민 노동자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다. 이 중에 상당수는 저임금 돌봄 업무나 서비스업, 건설업 등 3D 업종을 종사하고 있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F-4) 비자로 조선족들이 국내 장기체류 및 각종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때:

1. 단순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이는 대한민국 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질서나 공공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규제조치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를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F-4 체류자격 대상자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관리법 즉,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조선족들은 한 민족으로 간주되어 다른 외국인보다 출입국, 취업 등에 우대를 받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공공 복지를 위한 그들에게 비자를

<sup>37</sup> Yang-Sook Kim, Yi-Chun Chien.(2021)."We Are Not Foreigners": Constructing Migrant Subjects through Korean Chinese Migrants' Claims-Making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26(2),11-40.

발급하는 요건과 그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38</sup>. 이 후에 2008년부터 재외동포법의 요건이 조금 풀어지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한국인과 재외동포의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sup>39</sup>.

다른 방면으로 제외동포법의 적용에서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조선족,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시하게 된 정책의 하나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2007년부터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장기체류자격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아래 7종 상황에서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

---

<sup>38</sup> 설동훈.(2020).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담론201,23(1),7-60.

<sup>39</sup> 설동훈, 문형진.(2020).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 - 생성·성장·재편의 역동성 -.중국과 중국학,(39),25-54.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sup>40</sup>.

이러한 취업방문 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입국 및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이고 본국과 한국 사회의 상호 발전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2019년 10월에 방문취업 체류자격 발급 대상의 나이를 18-55세로 확대한 대로 이 제도는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서 친척이 없는 동포들에게도 입국 선택과 기회를 더 주었다.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들은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이나 직업을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만 미국 등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와 달리 당장 “재외동포”라는 신분을 발급받을 수 없고 지방으로 내려 제조업체에서 2년 동안 근무하거나 6개 월간 등록해서 특수기능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비자는 조선족들에게 입국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재미동포(한국계 미국인)가 누리는 혜택보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족이나 구소련 한국 동포를 한 측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그들을 포용하는 태도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설동훈·문형진, 2020).

### 3.2 조선족 간병인의 현황 및 인터뷰 분석

조선족 간병인들이 처음에 한국으로 와서 정착에는 2000년대 중국동포 대상 이주정책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장기 요양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노인돌봄, 환자간병 등 일자리가 크게 확대된다<sup>41</sup>. 이 고령화 시대와 핵가족의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늘어지고 있으며, 간병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한정우(2019)는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체력노동과 (환자 배설물 처리, 음식 먹여주기, 환자 부축해서 와장실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 휠체어 끌어주어 검사 받는 것을 도와주기

<sup>40</sup>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개정 2019.12.2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sup>41</sup> 김유희.(2018).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45(1), 180-208.

등)과 매일 수시로 환자의 고통을 보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정신적 위안’인 감정노동을 엮히는 ‘친밀한 돌봄’라는 직업이라고 했다. 신체적인 노동을 진행하면서 가끔 환자의 이야기 들어야 하고, 환자가 질환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간병인들이 정서파동이 다소 나타난다. 또한 중국 국적인 이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중국어 혹은 말투 다른 조선족 용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이들의 ‘이방’ 특성을 보여준다. 간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접촉, 소통 등 방식으로 중요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이러한 방식은 또한 이주민 사회 통합의 방식이라고 한다<sup>42</sup>. 동시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중국 조선족 남성들도 간병인 직업을 하게 된 것이다. 환자와 간병인이 모두 남성의 경우 밀접한 신체 접촉이 많은 이를 간의 나타나기 가능한 성희롱 문제를 다소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여성들이 간호하기 어려운 과체중 남성을 감당할 수 있다. 남성의 진입으로 간병인 인력 사장의 인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어 재한 조선족 간병인 직업 커뮤니티의 세부 사항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본부와 국가 통계 포털(KOSIS),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대전에 위치한 간병협회에서 간병인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조선족 김 씨, 수시로 각 병원으로 파견되는 간병인인 김 씨, 박 씨와 심층면담을 하는 것으로 통해 조선족 간병인의 구직과정, 일상생활, 일하는 과정, 개인 고민 등 정보를 얻어졌다. 이 면담은 주로 체계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와 같은 것으로 조선족 간병인 커뮤니티의 발전, 특징, 이 중 개개인의 이야기 등 알게 된다.

#### 인터뷰 대상자 개인 인적사항

성함	사례	출신지	나이	성별	재한기간	거주지	교육	민족	비자
김	1	길림성 룡진시	35	여	4	대전	중졸	조선족	F-4
김	2	흑룡강 모란강 시	42	여	9	수원	중졸	조선족	H-2
이	3	길림성 연길시	58	여	13	서울	초졸	조선족	H-2

<sup>42</sup> 한정우.(2019).조선족 간병인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다문화와 평화,13(1),116-138.

#### <표 6> 인터뷰 대상자 개인 인적사항

인터뷰 대상자 중 사례 1 김 씨(여, 35세)는 간병인 직업을 한 지 4년이 되고, 동시에 여러 직업을 뛰고 있다. 김 씨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많은 간병 경험과 지금 하는 일 중 하나—간병협회에서 간병인 모집 사람이다. 단순한 간병인 노동자보다 이러한 인원 모집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조선족 커뮤니티 전체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형식은 오프라인 면담 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wechat (위챗, 微信),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중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분투재한국(奮鬥在韓國)'으로 통해 음성메시지와 영상 통화로 진행했다. 모든 통화내용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녹음하였다. 자세한 인터뷰 질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간병인 일을 하게 된 중국 조선족들이 간병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노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간병인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조형 제도와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요양원, 재가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요양병원과 일반 급성기 병원의 간병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거나 혹은 한국의 요양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급하게 구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조선족들이 자격증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이어 빠른 속도로 한국 요양시설 간병 인력은 채워졌다. 수시 파견 노동력으로 조선족 간병인들이 단계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한 번에 병원으로 들어가면 24시간에 환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수시 병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2007년부터 한국 정부는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2010년 간병인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주면서 매년 5만여명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이 인력이 빠른 시간으로 거의 3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간병인 매칭을 해주는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의 원웅 본부장은 “중국 동포 중에서 청년부터 장년까지 일할 만한 사람은 그때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된다. 그중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간병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1세대 간병인들은 이제 60~70대가 됐다”라고 말했다<sup>43</sup>.

<sup>43</sup> 간병인 급구! 요양병원 조선동포 간병인들 어디 갔나, 주간조선, 2022.05.08 재편집

현재 한국 간병인 인력 시장에서 조선족 간병인들의 연령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 중 대부분은 50대, 60대 여성이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인보다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적성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 협회를 통해 간병 일을 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나이는 보통 50세 여성이고, 나이 많으신 분은 예를 들면, 75살, 78살이신 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나이가 좀 들지만 몸이 아주 건강하고 아직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간병인이라는 직업이죠, 뭐 아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노인 돌봄, 환자 돌봄 같은 것을 하죠. 나는 아직 어리고, 올해 35세거든요. 내가 했던 병원에서 31세로 들어온 간병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보통 간병을 그냥 알바, 일당 등으로 하고, 이걸로 정직을 하는 사람 보통 나이 좀 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간병을 하면, 마음대로 병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보통 일처럼 출퇴근시간 같은 것이 없어요. 집에도 갈 수 없고, 뭐 ‘퇴근시간이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라는 것이 불가예요. 밤에도 요양병원에서 환자랑 가깝게 쉬어야 해서 보통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 직업에 어울려요.” (사례 1)

위 사례로 현재 한국 체류중인 조선족 간병인 나이는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1은 35살 젊은 나이로 간병, 돌봄을 하게 되었으나 이 직업이 그가 여러 뛰고 있는 직업 중 하나 뿐이다. 그에 따라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보통 정규직 보다 일당 등 형식으로 간병을 겸직한다. 간병인 직업은 이들에게 주요 밥줄보다 잊어도 큰 상관이 없는 경제상황 유지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간병인이 되면 나이 제한이 없으며, 몸이 따라주면 나이가 조금 들어도 이 직업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공장 제조업, 현장 건설, 식당 등 순수한 체력 노동에 비해 노동 강도가 낮은 것으로 조선족 중 체력이 완전 유지하기 못하지만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은 이 직업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간다’라는 생활 패턴이 필요한 현지인인 한국인들이 이 직업을 하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이 특성으로 혼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찾는 조선족들이 신속하게 이러한 직업에 향해 쏟아졌다. 이러한 현상이 간병인을 비롯한 조선족들이 현지인의 ‘귀가’ 수요가 없는 이방인, 객지인의 특성을 나타나게 해준다.

간병인 직업을 하게 된 조선족들의 배경을 보면 출신지역이 바로 조선족 전체가 모여 사는 곳이다. 이 중 어느 지역의 조선족이나 차이가 없이 모두 한국에 가서 취직하는 가능

성이 있다.

“우리는 거의 다 동북삼성(동북지역) 출신이에요. 텐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거의 여기저기 여러 지역 다 있어요. 지린, 랴오닝...오, 엔볜 엔지 사람 특히 많아요. 나는 코로나 이후 계속 한국에 있어요. 코로나 전에 한국, 중국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일 거의 다 했어요. 간병, 여행사, 다이거우(한국 화장품 등 구매 대행),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해요. 코로나 이후 그냥 한국에 있어요.”

(사례 1)

조선족들이 주로 중국 북쪽 지역, 이 중에 또한 특히 동북지역<sup>44</sup>에 모여 있고, 중국 개혁 개방 후 외출하여 중국 큰 도시로 가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엔볜 조선주자 치구가 현재 중국 국내 제일 큰 조선족 거주지 (2020년까지 조선족 인구수 59.7만명, 전체 인구의 약 30.9% 차지)로 재한 자연스럽게 조선족 대표 출신지다.

코로나 대유행이 동포 권한을 얻고 양국 간에 자유롭게 왕복한 조선족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국가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족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계속 한국에 체류할 건지, 이 것은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했다. 오늘날의 한국 뉴스 보면 가끔 병원,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급하게 구하는 소식을 전해온다. 많은 조선족들이 홀로 한국에 있고, 이들의 가족은 아직 중국에 있다. 긴 시간에 가족 분리, 혹은 여러 다른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고, 한국에 이미 오래 있고, 가족과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조선족들이 이미 떠난 나라(중국 혹은 한국)와의 접촉하는 기회를 감소시켰으며, 이들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

언어 사용에 둘러싼 문제가 조선족 간병인들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환경 적응 등 화제를 토론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특별히 연구 참여자의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를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족학교 다녀서 지금 한국어 사실 잘 못해요. 집에서 가족들이 다같이 중국

44 동베이(東北, Dōngběi)은 중국 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동북 지역의 행정구역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의 3개 성이 포함되며 내몽골 자치구 동북부를 포함하기도 한다.

어만하고,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운게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한국말 말투는 조선족과 같지 않아요. 예전에 한 마디도 못해서요.” (사례 1)

이에 우리는 조선족이라면 무조건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증거를 찾았다. 참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례 1이 한국 오기 전에 한족학교만 다녔으며, 한국말 구사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조선족 신분을 보유하여 다른 조선족과 같이 동포 비자로 한국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생활 습관 등 요소를 분석할 때 사례 1은 한국인과 명의로 같은 민족이지만 거의 한족과 다름없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사람이에요. 나는 조선족이지만 한국어는 거침 없이 하는게 아니예요. 나는 중국에서 한족 학교를 다녔고, 수업은 다 중국어로 진행했어요. 조선(한국)어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저절로 하긴 한데, 말만 하고, 쓰는 것은 스스로 배우게 되었어요.”

(사례 2)

한족 학교만 다녔지만 집에서 조선어를 하는 사례 2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다. 한족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으며, 중국어를 거침없이 사용한다. 집에서 민족언어를 쓰지만 조선족이 쓰는 조선어와 지금의 표준 한국어가 억양, 단어, 문법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점이다. 더구나 사례 2는 한국에 와서야 읽기 능력을 처음부터 키웠고, 말투 다른 조선어를 하는 것도 이의 한민족 정체성, 동질감을 혼란 시킬 수 있다. 물론 민족 언어만 하는 중국 조선족도 있다.

“나는 2008년 쯤에 한국에 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있어요. 나는 조선족 초등학교를 다녔고, 아직 중국 국적인데 중국어 잘 못해요. 부모님도 조선(한국)어만 해요.” (사례 3)

연구 대상자 중 나이가 가장 큰 사례 3의 모국어는 조선어이다. 길림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주변은 거의 조선족만 있는 이는 이러한 소집단을 위주로 생활 습관을 형성했다.

40대 초반까지 계속 중국에 있었던 그는 언어, 음식, 생활 습관들은 매우 전통적이고, 고유한 민족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 이 같은 경우는 중국어만 사용하는 지역보다 고향, 혹은 같은 민족인 나라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친근감을 주지도 모른다.

조선족이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에 집중되고, 다른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이 현상이 더불어 조선족들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로 온다는 것을 인증하고, 인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서울과 가깝지만 생활비용이 적은 지역이라 인기가 또한 많다.

“대전은 뭐 조선족들이 특별히 모여 사는 동네 없는 것 같고, 서울이면 아마 너도 알 것 같아요. 대림, 구로, 경기도 안산 등등, 이런 곳에 조선족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족 간병인들이 주로 H-2, 그리고 F-4비자 소지하고 있어요. 나는 F-4, 네, F-4예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4년전에 한국에 와서 장기적인 체류를 시작했어요.” (사례 1)

방문취업 F-2 비자와 재외동포 F-4비자는 확실하게 조선족에게 취업 편리성을 준다. 사례 1에 따라, 조선족 간병인들이 이 두가지 비자를 소지하고, 신청 시 보통 어려움이 많지 않다. 이 것이 또한 한국 정부가 노동 인력을 끄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한·중 양국 수교 후 상당히 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가정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 양국 수교는 30년이 되었고,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이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고 있다.

“에구...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유는 돈빼고 뭐가 있지?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임금이 중국보다 조금 높잖아요. 진심으로 말하면 누가 고향을 등지로 떠나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싶어요?” (사례 1)

“나는 30대 초반일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 태어난지 얼마도 안된 딸을 키워야죠. 취직에 경쟁력이 별로 없고, 일반적인 단순 인력직을 하면 중국보다 한국이 월급이 더 많이 주긴 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혼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2013년이었고요.” (사례 2)

사례 1과 사례2는 모두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이 수십년 간에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기초적인 일자리 임금 수준은 한국 보다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형편이 좋지 않으며 무거운 경제적인 부담을 드는 조선족들이 이러한 심각한 임금격차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작은 중국 중소도시인 고향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다.

“나는 중학교 다녔다가 관두고, 여려 허드렛일을 하다가 어느새 40세 넘었네요. 그 때 내 주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 한국에 와요. 나도 왔죠. 그때 우리 아들이 18살쯤이었고,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나랑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아이들을 그들의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어요.”(사례 3)

“아 참, 자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직하고, 그래서 따라서 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간병을 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사례 1)

사례 3은 조선족 소학교(초등학교) 학위만 소지하고 있고, 특별한 재주가 없는 그는 40 세 초반까지 인구수가 적고, 발달한 산업이 없는 고향 길림성 매하구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당시의 남편과 조그마한 장사와 가정 노동 등을 무계획적으로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 조선족들이 한국 진입 더 쉽게 되며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품팔이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이 직업을 하게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을 해본 적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중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급여 뿐 아니라 다른 측면의 고려도 존재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좀 합든 일이에요. 무거운 그릇을 들고 서빙하고, 힘쓰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나이 든 사람에게 힘들잖아요. 농사짓는 것도 완전 체력 직업이고, 건축 현장도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최선의 선택이 간병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병원에서 노인돌봄만 하면 돼요. 환경도 시끄럽지 않고 식사도 제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좀더 편하기 위해 간병인이 되었죠.”(사례 1)

사례 1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식당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다. 아이가 아직 젊지만 체력직을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조금 쉬운 간병직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직업을 뛰면서 최종적으로 간호만 하는 간병일로부터 간병인 단체를 통합하고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는 중개 사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한국 처음 왔을 때 부산에 있었고,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월급이 150만원 밖에 없고, 정말 낮고, 집 월세, 수도료 등 관리비 내고 기본적인 생활비 빼고 남은 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사례 2)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식당... 그런 갈비구이 전문점 알죠? 난 거기서 거의 한 6년 동안 했어요. 나이가 들을수록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협회 소개를 받아 간병인이 되었어요.”  
(사례 3)

이에 우리는 재한 조선족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대충 파악할 수가 있다: 기능을 못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 오게 되는 조선족들이 보통 건축현장, 식당 등 체력직을 한다. 한국에 오는대로 첫 직업이 간병인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얼마 동안 하면서 인맥을 쌓고 다른 계기로 간병인 직업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간병인이라는 이 직업이 점점 재한 조선족이 다른 직업에 빠져나갈 때 물려서는 여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병인이 되려면 우리 같은 간병인협회, 아니면 다른 중개 행정사무소를 통해만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우리 협회에 들어오면 비용을 안 받아요. 무료예요. 한국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이 거의 다 협회로 들어간 조선족이고, 한국인들이 간병인 일을 하고 싶다면 또한 우리를 통해 취업하게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들을 맞이하고 병원으로 보내고, 사람을 교체하고, 월급도 우리는 지급해요. 병원이랑 협약이 있어서요.”(사례 1)

“나는 그 때 병원에 가고 물어봐서 일을 찾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소개를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사례 2)

“보통 간병인 직업을 위주로 하는 조선족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이가 좀 듦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들이 보통 서로서로 일자리를 소개해요. 나는 한 조선족 단톡방에서 채용정보를 올리고, 이들이 내 광고로 통해 찾아와요.”(사례 1)

지인, 중개 사무소 등으로 소개를 받아 직업을 얻게 되는 방식이 재한 조선족 간의 흔한 취직 방식이다. 앞에 언급했던 이 직업의 특성으로 간병인 중 많은 사람들이 외래 이주 노동자며, 이 중에 자연과 문화 상 가까운 많은 중국 조선족이 제1대 간병인으로 취직을 했다. 이 영역에서 업무 실력과 인맥을 오래 투자하고 쌓는 이들은 보다 늦게 한국에 오는 동향인에게 취업 정보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이 중의 많은 사람들이 협회, 중개사무소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비용을 받아 정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점포를 열렸다. 이런 형식을 분석하면 조선족 간병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도 이들만 특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조선족’의 신분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만드는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소속감을 찾게 된다.

노인, 환자를 돌보고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간병일은 단순한 체력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이다. 그러나 이 직업이 완전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고, 불안정성도 보인 것이다.

“딱히 무슨 자격증은 필요없어요. 없어도 되고, 간병인이 되는 것이 나이 제한도 없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관없고, 일만 할 줄 알면 충분해요.”(사례 1)

“요양보호사 자격증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하면 보통 2교차, 3교차로 일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24시간에 일하고, 4대보험에 없어요.”(사례 2)

“월급이 240만원부터 330만정도까지 다 있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12인실이면 금여가 보다 많겠지. 그 정도는 보통 월급 330만 정도 돼요. 6일실의 경우 260만원, 280만원 정도 구요. 일상생활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더 비싸요.(사례 3)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도 병원에서 간병할 수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임시 고용자처럼 4대보험 적용이 못했다. 월급이 체력노동에서 상대적으로 많지만 가

끔 하는 일도 힘들다. 간병 직업에서, 간병인 1명이 환자 2명이상 돌보는 경우 ‘공동’이라고 하고, ‘공동’의 경우 월급이 월마다 지급된다. 1대1로 간병하는 경우 임금이 주마다 계산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간병 형식이다. 다른 직업보다 자격증 없는 간병이들이 월급 외에 다른 보장이 없으며, ‘빠른 돈’을 버는 현식 중 하나다.

“환자가 많을 때, 간병인 한 명은 환자 10명, 12명까지 돌봐요. 대신 환자가 많을수록 임금도 더 높아요. 낮에 쉬는 시간이 많고, 낮잠도 잘 수 있어요. 반신불수 환자라면 주의해야 하는 점이 시간 맞춰서 기저귀 갈아주기 도와주고, 식사 준비 등을 하고, 우리는 보통 이것들하고 나서 쉴 수 있어요. 간병하는 동안 집에 갈 수 없고, 병원에서 취침하는 것을 빼고 뭐, 대충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내 소개를 통해 간병하는 사람 중 38, 39살인 사람도 있어요. 힘든 일, 예를 들면 판매, 식당 일 하기 싫은 사람이 좀 있어요. 이 들은 간병인으로 되면 낮에 좀 적당히 쉴 수 있어요. 낮에 티비를 보거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사례 1)

“24시간에 환자에게 책임져야 돼요. 음식을 콧줄로 유동식을 넣고, 쓰레기 비우고, 방을 청소하고,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요. 문제 없을 때 쉴 수는 있지만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돌볼 때 이 환자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 때 저 환자에게 다시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사례 2)

“일이 생기면 미리 담당자에게 얘기해주고 가면 돼요. 대신 하는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서 며칠 쉬어도 돼요.” (사례 3)

간병을 하면, 일상생활 패턴이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병실에 환자가 많으면 동시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십상이기 때문에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고,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입어주고, 배설물 처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낮잠을 잘 수 있다. 간병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병원 외 출입을 못하지만 틈이 생기면 환자와 같이 쉬고, 핸드폰이나 티비를 본다. “충전기를 집에 두고 병원으로 가면 큰일난다.” 참여자 2가 야유적인 말투로 일이 없을 때 어느 정도로 심심한지 서술했다.

하지만 대부분 간병인의 밤은 편하게 취침하지 못하는 밤이다. 24시간에 환자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간병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환자가 필요하면 새벽에도 당장 일어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적응 잘 되면 괜찮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일 잘 못하고, 벼릴 수는 없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가끔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가 시끄럽고...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어떤 환자 가족이 환자 조급증 나면 손이랑 발을 묶어주라고 해서 가끔 정신병 질환 환자 돌보면 밤에 종종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도 많아요.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발생해요.”(사례 2)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 좀 많아요. 한번은 어느 환자가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났어요. 그 때 석션용 호스를 환자 목에 걸개 삽입된 기관에 넣어서 가래를 뺏아들여야 했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사례 3)

고통으로 인해 새벽에도 소리를 지는 환자를 간호하면 상황이 될 때만 시간을 내서 부족한 잠을 잔다.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를 돌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때로는 밤에 행동이 불편하고 응응거리는 치매 노인 환자를 부축해 대소변 받아내리기도 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가래를 기계로 뺏아들인다.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가끔 늦은 밤에도 정신을 차려야 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간병인 커뮤니티는 이 직업에 들어오는 조선족 때문에 점점 커지는 동시에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인, 중국인과 지내는 과정에서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정체성, 대인관계에 대해 사고 방식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주변에 조선족이랑 한족은 사실 성격이 좀 안맞아요. 특히 나이가 좀 든 조선족 사람이 한족에 대해 편견이 있긴 해요. 조선족이 한국말 잘하는 것도 그렇고, 말도 예쁘게 해서 오히려 보다 한국인이랑 친한 사람 더 많아요. 간병인 일을 하는 중국 한족 사람이 보통 한국말 잘 못해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사례 1)

사례 1은 조선족이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거의 없고, 어릴 때부터 한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반 중국인과 다른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간병인을 모집, 간병 협회 내부 인원 소통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몇년간에 다양한 신분을 가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법을 좀 알고 있었다. 그가 경험했던 일을 보면, 중국인들 간에도 언어, 생활습관, 성격, 취향 등으로 불화한 사례가 종종 있

다.

“나에게는 우리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중국인이잖아요. 내 주변에 한국인보다 중국 친구가 더 많아요.”(사례 2)

중국에서 한족학교를 다닌 사례 2가 집에서 조선(한국)어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 중국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중국인 정체성이 매우 강하며, 민족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중국인이다’라고 했다. 중국 조선족들이 쓰는 조선어 말투가 표준 한국어와 차이가 상당히 나서 이로 인해 주변 한국인들이 여전히 단순한 외국인 아주 노동자로 취급하고, 심지어 이 ‘다른 말투’로 차별을 당해 본 적이 있었다고 자술했다.

“내 주변에 조선족친구와 한국친구 더 많아요. 나는 중국어 잘 못하고, 게다가 생활 습관, 음식 취향 거의 다 달라요. 나는 조선족이랑 같이 있는게 더 편해요.”(사례 3)

사례 3이 한국에 온 지 이미 10년을 넘어, 한국 사회를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받았다. 출국하기 전에 늘 조선족학교를 다니고, 작은 현지 조선족 단체에서만 사회 활동을 했었다. 중국어를 잘 못 한다는 특징은 이가 중국인과 교류할 때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더구나 그는 한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을 거의 모두 상속하고 오히려 한국인이나 같은 조선족과 함께 있으면 더욱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솔직히 나는 우리 딸 앞으로 한족 사람이랑 결론하지 않으면 좋겠어요.”(사례 3)

편견으로 중국 한족과 접촉하고 싶지 않는 조선족이 존재하며, 이들은 보통 나이가 든 조선족이다. 옛날 시절에 일부 조선족들이 자신을 한민족과 같은 ‘깨끗한 백의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한족 사람을 위생을 주의하지 않고, 심지어 샤워를 자주 안하는 ‘때놈’이라고 비칭했다. 시대의 발전과 중국 내부, 그리고 국내외 교류가 증가함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이와 비슷한 편견을 버렸지만 원래 있던 소집단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아직 좀 어렵다고 보인다.

코로나 시대 하의 국가간에 교류가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감소하면서 모국과 거주국 양 국을 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쪽에서 체류하기 시작했다. 한·중 양국을 왕복하는 조선족이 또한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시점에 온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 많아요. 간병인 일을 하게 된 조선족 사람이 거의 한국인 보다 더 많아요. 한국 국내 어느 도시에 다 있어요. 간병인이 하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랑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아야 하게 때문에 매일 집에 가야 되는 그런 한국인들이 못하죠.”(사례 1)

코로나로 인해 외지 체류의 불안정성과 중국 국내 체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중국을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다. 조선족은 간병인의 정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많은 병원들이 간병인을 못 구해 아우성이다. 중국으로 돌아가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조선족들이 지금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일까?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건지, 혹은 한국에서 있으면 잠시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생활할 건지, 간병인으로 언제까지 근무하는지는 모두 이 시대가 조선족 간병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지금 간병인으로 일을 가끔 하긴 한데, 이것은 그냥 내가 하던 일 중 하나 뿐이에요. 앞으로 계속 할지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일을 좀 더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돈 좀 벌고 중국에 돌아가서 살 건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나는 내가 중국인으로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국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른 나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 어디 좋아요?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한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중국에 더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돈 벌어요.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버는게 사실이긴 해요.”(사례 1)

“한국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냥 중국인이라고요. 조선족 같은 말 안 해요.”(사례 1)

한국과 강한 연결이 없고,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 때문에 한국에 온 조선족이 나중에 이들의 목표를 달성 후 중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에게는 간병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돈버는 방법 중 하나뿐이고, 다른 직업을 동시에 뛰고 있으니 간병을 포기해도 큰 상관이 없다. 또한 그는 수십년간에 계속 중국에서 성장하고, 중국어로 교육을 받았고, 주변에도 거의 전부 다 중국어 위주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에게 완전한 낯선 국가와 다름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금격차로 한국에서 잠시 머물고 있지만 정체성이 중국쪽과 더 가까워 ‘이 나라 사람으로서 나중에 결국 자기 나라 돌아간다’고 털어냈다.

문화 차이를 제외하고, 가족도 조선족 간병인들이 향후 어디에 정착하는 것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소다. ‘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을 해냈다.

“한국 문화, 생활 패턴, 언어 등 더 적응되는 사람들은 한국에 남아있고 싶어요, 내 주변에는. 아, 가족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에 가고 싶은데, 가족이 거의 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한국에 살고 싶죠.”(사례 1)

“가족들이 거의 다 중국에 있어요. 딸이 올해 11살이고, 지금도 중국에 있어요. 나는 앞으로 중국으로 돌아갈 건지 계속 한국에 있을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사례 2)

참여자 1은 자신의 조선족 신분에 대해 민족, 문화 소속감이 부족해 나중에 중국으로 갈 결정이 내렸으며, 가정 구성원의 현위치는 또한 그의 마음을 끌고 있다. 참여자 2의 어린 딸이 지금 중국에 있지만, 조선족의 신분으로 나중에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2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모두 유창하게 사용해 한국 혹은 중국에서 문제없이 지낼 수 있지만, 말투가 다른 조선어로 한국인에게서 자주 의혹과 편견, 차별 등 부정적인 정서를 받아서 중국이 그에게 친근감을 더 많은 준다. 하지만 가정과 임금 요인으로 나중에 어느 국가를 선택하여 살게 되는지 아직 미확정이다. 이미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하는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동생, 아들, 딸... 지금 다 한국에 있어요. 나도 앞으로 쭉 여기서 살 것 같아요. 사실 국적을

바뀌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 이미 14년이 있고,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한국에 있으면 소속감이 더 많이 있어요.”(사례 3)

“많은 사람들이 귀환으로 국적을 바꿔었어요.”(사례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여자 3의 아들이 고등전문학교<sup>45</sup>를 졸업하고 한국에 화서 회사 공장에서 벽돌을 옮기는 일 등 현장건설 관련 일을 하게 됐다. 딸도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점점 사라진 것 같다. 한국에서 친근감과 소속감을 더 많이 생기는 그는 귀환으로 한국 국적을 바뀌면 한국에서 각종 한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수진 (2021)는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고 한국인들에게 타자로 인식되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이주민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 대학생이 인식하는 조선족의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 중 신문뉴스, 다른 미디어 매체가 조선족들을 범죄 이미지로 묘사와 보도한 것으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했다. 또 다른 이유는 비슷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이 존재하는 조선족 문화와 이들의 정체성 문제에 따른 이방인 느낌으로 인한 친숙감 결여 등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들에게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자는 한국인들이 조선족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려면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감수성이 필요할 것이다<sup>46</sup>. 본 논문에서 나타나는 조선족 간병인 사례 3명이 이들의 신분으로 인해 모두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당해 본적이 있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인의 신분으로 차별 당했어요.” (사례 1)

“사실 돈이 아니면 이 직업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제일 적응이 안되는 부분은 한국인들이 정

<sup>45</sup> 고등학교와 분리되는 직업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하고, 보통 졸업 후 대학교로 입학하기 대신 직접 취직한다.

<sup>46</sup> 조수진. (2021). 한국 대학생의 이주민 호감도에 관한 연구: 조선족 이주민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9(2), 47-52.

말 뺏속까지 우리를 깔봐요.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한테 태도를 바뀌었어요. 눈빛부터 말투까지...가끔씩 정말 억울해요. 차별 당한거죠.”(사례 2)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있었고, 지금은 딱히 그런 것이 못 느껴요. 주변 사람들이 거의 그냥 나를 한국인으로 봐요.”(사례 3)

참여자 1은 한국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조선족인 신분을 언급하는 것을 대신 그냥 중국인이라고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서 차별 당한다는 이유는 이들의 중국인 신분이고, ‘조선족’과 상관없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조선족 간병인에 취하는 태도는 이들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동질감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반대로, 나이가 좀 들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쓰는 조선족은 한국인과 차이점이 많지 않아 보통 매우 심하게 차별을 당하지 않다.

방문취업제와 제외동포 입국 허가를 실시한지 이미 오랜되어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조선족 간병인들이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복지후생,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공동을 하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대일로 환자를 간호하면 공기밥만 줘요. 반찬은 돈내서 사야 돼요. 나는 일대일로 일할 때 공기밥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반찬도 꼭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사례 2)

“에휴...한국 지금 우리 조선족에 대해 실시하는 취업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H-2, F-4 비자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 제한이 많아요. 자꾸 비자 때문에 걱정하고, 자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해요. 조선족 대우는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사례 1)

“우리 재한 중국인 동포들이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일을 하고, 눈물, 콧물, 핏물로 돈을 바꿔었네요...한국인들이 하기 싫은 이런 더럽고 힘든 일인데 이만큼 돈을 못 받았어요.”(사례 2)

간병인이라는 이 직업이 많은 일반 체력직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근무 내용

을 고려하면 임금수진이 발전하는 공간이 더 있다. 더구나 현직 조선족 간병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이들도 간병일에 대해 불만이 종종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현재 재한 조선족 간병인들이 이 직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3 한국 사회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인과 중국인이 Korean-Chinese라는 단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분석하면, 이들에 들어가는 감정적 색채도 다르다.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유일한 대명사다. “조선”은 한반도를 상징하며, “민족”的 “족(族)”은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중화 민족<sup>47</sup> 56개 중의 하나로서의 뜻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이들의 중국 정체성이 더욱 표현하게 된다. 한국인들이 “중국 동포”를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더 가깝다. “중국”은 이들의 출신이며, “동포”는 같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특징이 보인다. 조선족은 다른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며, 조선족들은 역시 한국 체류 외국 국적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문화적으로 중국, 북한과 연계되어 한국 국민에게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족은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에서 또한 조선족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해 교육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멈춰 있으며, 학계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무사증 제주도 진입이 허용<sup>48</sup>된 2002년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노동 갑을관계에서 “을”에 위치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또한 그들 중 몇몇 사람이 불법체류, 사기, 폭력사건 등 사회적 문제도 일으켰다. 특히 오원춘, 박춘봉, 김하일 등 강력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신문

47 중화민족(중국어 간체자: 中华民族, 정체자: 中華民族, 병음: Zhōnghuá Mínzú 중화민족)은 민족 국가 건설로서의 근대 중국사와 관계된 정치적 용어이다. 1980년 후반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다양한 민족이 구성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개념을 '동일 민족(nation)에 근거한 민족 국가'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

48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했다.

뉴스로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조선족이라는 단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 됐다. 셋째, 2010년 영화 『황해』 이후 등장한 한국 영화에서는 조선족이 주로 범죄자로 그려졌고, 이러한 시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공포증, 증오 등의 감정이 점차 생기고(한희정, 신정아, 한국 드라마 236).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화가 유행할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아웃사이더와 가깝게 되버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조선족은 자신의 조상, 혈통 등 “모국”에 관련된 정서와 경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갈망인 ‘코리안 드림’이 맞물려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해 노동 ‘이주’를 하게 된다.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단기 노동력의 유입’으로 시작된 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불법 체류나 위장 결혼 등으로 한국 사회에 혼란을 저지른다고 논란이 있었다. 2003년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가 전면 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도 재외동포로 포함되어,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었다<sup>49</sup>. 이어 2006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조선족은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에 정착하는 재외동포의 위치로 합법적으로 변천했다(이용재, 2015). 따라서 조선족의 ‘이주’는 단기 이주, 불법 체류 등에서 ‘장기 체류’의 모습을 보인다. 조선족은 현재 가족 이주자의 형태로 한국사회에 정주하는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sup>50</sup>, 한국으로 오게 된 대부분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편의성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력으로 쉽게 유입되고 있지만 한국 국민과의 문화적인 괴리감은 여전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김홍매 2011).

지금까지 조선족의 이미지는 범죄 관련 가해자 이미지를 묘사하는 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이 등장하는 영화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에서는 ‘대림’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을 범죄 관련 가해자 이미지로 등장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림’이라는 선입견을 영어로 바꾸어 <빅 포레스트<sup>51</sup>>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sup>49</sup>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단, 개정법은 ‘외국국적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직계 자손으로 한정하고 있어 3세대 이후 4세대의 재외동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 4세대를 재외동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법적 개정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sup>50</sup>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sup>51</sup> <빅 포레스트>는 2018년 서울 대림동을 배경으로 폭망한 연예인과 초보 사채업자 그리고 조선족 싱글 мам이 좌충우돌하며 펼쳐내는 이야기를 담은 블랙코미디다. 이야기의 배경인 대림동이 가진 한자 뜻을 영어로 옮겨 놓은 것이기도 하는 장면이 있다.

드라마에서는 조선족을 한국 사회의 약자 이미지로 등장했다. 이러한 불량한 사회 이미지는 한국인들에게 조선족에 대한 편파적인 편견을 초래하고, 또한 조선족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가져오지 못했다.

가상준 등 (2014)에서는 다른 단체 간의 서로 혐오 감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한 한국인들이 국내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조선족(중국동포), 다른 외국인 노동자 등 집단 간에 가지고 있는 혐오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혐오감을 가장 많이 가지는 단체는 조선족,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이러한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에 대해 신뢰가 갖지 않고 나이가 낫을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조선족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국 영화 (한희정·신정아, '한국영화' 113)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족 캐릭터가 다뤄진 것은 2010년 이후였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영화에서 조선족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단체는 아니었지만 2010년 개봉한 영화 '황해'의 '악인'에서 조선족의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이어 범죄영화 <카운트다운>(2011), <신세계>(2013), <차이나타운>(2014), <미씽: 사라진 여자>(2016), <청년경찰>(2017), <범죄도시>(2017) 등을 통해 범죄 영화의 흥행에 따라 조선족의 범죄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은 같은 혈통을 지닌 동포가 아닌 범죄자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혐오를 많이 받고 있다. 영화 속 조선족들은 범죄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라 한국 사회에 이들과 관련된 혐오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청년경찰>은 조선족 이미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565만 명의 관객으로 흥행 성적을 보여준 것<sup>52</sup>이 무서운 현상이다.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는 예술 작품, 그리고 조선족 부정 행위에 집중된 뉴스보도는 이러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강화하게 했다. 특히 조선족이 모여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동 등 지역은 오명을 입고, 거의 한국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지역이 같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편파적인 시각으로 조선족을 보고, 이어 편견과 오해가 쉽게 생긴다. 이태정(2005)은 한국 사회가 조선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을 차취하는 기제는 법적, 제도적 배제와 경제적 배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genophobia)'과 '자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에 사회 문화적 배제에

<sup>52</sup> 음영철, 김정현, 노동욱. (2021).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 225-251.

있다고 했다. 이정은(2013)에 의해 조선족들에 대한 차별은 조선족들이 외국인 소수집단이라는 것보다는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이 학자의 말을 따르면, “한국인들의 강한 계층의식, 권력 중심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1980년대 후반 한국 민주화 운동 이전 독재 시절의 모든 힘을 모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이념 하에 노동조건에 대해 자신의 편파적인 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육체노동자, 특히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온 이주민들에게 같은 노동조건 (예: 환경, 시설, 임금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이미애(2021)의 조사에 따라, 한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한 한국인 사장은, 조선족이 한국인과 같은 고용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정은(2013)은 또한 “중국동포(조선족)들이 한국인들에게 인정 받으려고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무식하다고 판단하고, 보통 그들을 무시하는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육이나 작업장 내에서의 평등 이념을 고취했던 사회주의 체제 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태정(2005)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차별에 대해 종종 마음속에 상처를 받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사회를 배제해버리는 ‘배제의 배제’ 방식으로 대응하는 추세가 있다”고 했다. 어떤 학자가 한국 사회가 조선족에 대한 태도가 혐오와 편견이 가득하거나 완전 개방적인 태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성수의 주장에 따라 행동과 표현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표현이라는 문제는 현실을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힘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족 몰아내기'보다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더욱 일으킨다<sup>53</sup>.

---

<sup>53</sup>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어크로스, 2018.]

## 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현제 이 다문화적 특징을 지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중국 조선족을 둘러싼 연구며, 조선족 간병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커뮤니티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한·중 양국과 밀접한 역사와 문화 연결이 있는 조선족이라는 이 단체의 정의, 기원을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이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기재한 자료를 시간대로 정리했다. 한국 정부가 조선족을 구소련 ‘고려인’과 함께 ‘재외동포’라고 분류했으며,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조선족이 더욱 편리하게 한국을 진입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정하고 있다. 이어 단기방문(C-3-8, 관련 자격증이 소지하는 경우 후속 비자 전환 가능), 방문취업(H-2), 제외동포(F-4) 등 비자로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진입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이 중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 간병일을 하게 된다.

개인 경험이 각자 다르며, 현저한 차이를 가지는 조선족 간병인 여성 3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는 것을 통해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도록 했다.

각종 수요로 남성 간병인이 점점 이 직업에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중에 나이가 든 여성들이 간병일을 위주로 근무하며,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간병을 하는 직업 중 하나로 간주하고 보통 여러 직업을 뛰고 있는 상태이다. 조선족 간병인 중 고령층(75 세 이상)인 사람이 있고, 건강 컨디션이 허락하면 이 집중이 연령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요양원에서 2교차, 3교차로 환자를 간호하는 일과 달리,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 보통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환자 옆에 항상

지켜주고 챙기면서 환자와 함께 식사하고 취침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직장인 패턴인 ‘매일 퇴근하고 귀가해서 가족을 만난다’는 생활방식이 많은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가족이 멀리 있고, 혼자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직업을 하게 되고, 이 중에 또한 취업 비자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취직하기 쉬운 조선족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업 영역에서 경쟁력이 뚜렷하지 않은 일부 조선족이 식당, 가사 노동, 건설 현장 등에서 체력 노동을 하다가, 고강도의 체력 노동에 지치는 사람이 보다 체력에 많이 요구하지 않은 간병일로 취직 방향이 바꿨다.

한국에서 취직하게 된 조선족 간병인이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조선족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이는 조선족 개인의 성장 환경과 개인 경험에 따라 다르다.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구에서 조선족 학교와 일반적인 한족 학교가 서로 있으며, 어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조선족 개인의 언어 사용 능력과 습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가정 교육도 중요하다. 집에서 가족들과 어느 언어로 교류하는지가 이들의 언어 사용 습관에 영향을 준다.

한국에서 간병일을 하는 조선족들이 보통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동포’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해 특종 직무 분야에 일을 하는 것에 편리를 가져왔다. 중국 조선족 중 많은 사람이 중소도시 출신이며, 고향 심지어 중국 다른 대도시에서 비슷한 특종 기술이 필요없는 직업을 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임금격차로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된다. 하지만 조선어로 교육을 받고, 민족 언어로 주변 사람과 교류하며 중국어가 서투른 조선족이 풍습, 문화, 그리고 언어 요인 등으로 한국에 온 사례가 또한 많고, 한국에 있는 자녀를 따라와 간병인이 된 사람도 있다. 체력이 많이 드는 필요가 없으며 사람을 잘 돌보는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도 간병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긴병인이 이 특징으로 재한 조선족이 다른 직업에 빠져나갈 때 고려하는 여지가 되고 있다.

대부분 재한 조선족이 서로 강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커뮤니티에 소속한다. 혼자 한국에 처음 올 때 보통 친척, 친구 등 지인으로 소개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각 과 출부, 다른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등으로 직업을 받게 된다.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 협회로 통해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많다. 소셜미디어에 있는 동향인 그룹, 동 직업 그룹 등 다양한 조선족 단톡방에 가입에 각종 취업 정보, 한국 생활 ‘꿀팁’ 등을 획득한다. 조선족 뿐 아니 다른 중국인도 다소 이러한 ‘단체’ 소속을 찾는 특징이 다소 있는 것이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증 있어 요양원에 2교차 혹은 3교차로 일하고, 매일 집에 갈 수 있는 간호사와 달리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 조선족 간병인이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무 형식은 정규직이 적용되는 4대보험에 없으며, 간병의 형식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모두 불안정성이 다소 보인다.

한국에서 긴병인이 된 조선족이 주변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을 증가했다. 우선 언어 사용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투르거나 조선족이 평소에 쓰고, 말투가 한국어와 많이 다른 ‘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환자와 그의 가족과 접촉할 때 자신이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자주 들으면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에 중국어보다 한국어 더욱 편하고 생활 습관과 풍속이 한국인과 더 가까운 조선족이 오히려 한국에서 동질감을 더 얻는다. 이러한 차이와 편견으로 인해 조선족 내부에도 가끔 갈등이 생긴다.

자격증 없이 이 직업을 할 수 있으며, 체력 노동 중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긴병일은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간병인 1명 혹은 2명이 10명이 가까운 환자를 돌보는 과정이 쉽지 않고, 자주 밤 늦은 시간에 환자의 긴급상황을 처리하고, 고통을 지닌 환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 받는다. 이어 많은 조선족이 월급과 식사와 같은 근무 대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조선족이 다소 한국 사회로 차별을 당해 본 적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점점 적응하며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을 덜 많이 당하지만, 한국에 정착한지 얼마 안되고, 현저한 ‘이방인’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이 ‘뼛속까지 깔보는 시선’을 받는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신분 아닌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며 국가간의 상호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재한 조선족 간병인이 미래에 대해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일부 사람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취업 정책에 불확실성이 느껴 중국에 돌아간 반면, 경제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 재한 조선족 간병인이 한국 체류 시간, 자신의 소속감, 문화 동질감, 가족 현황 등으로 인해 개개인의 선택을 했다.

본 연구가 현재 재한 조선족 간병인 커뮤니티 구성원 현황에 심층 면담으로 진행했다. 연구는 먼저 조선족의 이주역사 자료를 수집해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며, 이어 재직

조선족 간병인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재한 조선족들이 대부분 간병, 식당, 건설현장 등 직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 직종분리 등 계층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간병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규모 조선족 간병인에 대해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하면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어 문헌

재한 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 선주,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1권 4호, 2021.11

당대 조선족 인구 발전 현황, 리옌, 중국민족문화자원고, 2019.04.09

이미애.(2021).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불법적 위치’ 재전유하기: 프랑스의 중국 조선족 연구. *한국사회학*, 55(1), 131-178.

유명기,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韓國文化人類學』 제 35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김진열·조예신, “재한조선 족의 민족정체성 변화에 대한 고찰: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7권(2018);

정희옥·윤종빈·김진주, “재한조선족의 사회신뢰: 이주국과 본국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2017);

김윤태.(2021).중국동포 다중정체성의 형성: 문화대혁명 시기 한민족 정체성의 소실과 복원. 『중국연구』, 86, 115-140.

주성화, 『중국 조선인 이주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pp.75-107;

최승현, “중국공산당의 ‘연방제론’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1집 4호(한국동북아학회, 2016), p.21.

김현미.(2008).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 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39-77.

박광성,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제21호  
류춘욱·김병호(2007), 『조선족 사회문제의 현 실태에 대한 사고』, 중국 조선족 인구 문제  
와 그 대책, 민족출판사 12쪽.

중국의 자치주(自治州)는 소수 민족이나 원주민 등 주민에게 자치가 인정된 주(영어: prefecture)를 가리킨다.

"30년만에 70만명 넘어왔다"...中엔벤보다 韓에 더 많은 조선족,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22.01.20 28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185~187쪽.

조형재.(2015).중국동포의 대이주 현황과 바람직한 지원 방안. 『재외한인연구』,(36),69-106.  
24

최승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80권,  
pp. 123-124. 31 최승현.(2020).재한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중국 요인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5(4),27-45.

정선주.(2021).재한 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기도 부  
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11(4),191-225.

설동훈.(2020).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담론201,23(1),7-60.

39 설동훈, 문형진.(2020).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 - 생성·성장·재편의 역동성 -, 중국  
과 중국학,(39), 25-54.

김유희.(2018).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  
지정책,45(1),180-208.

한정우.(2019).조선족 간병인의 서비스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다문화와 평화, 13(1), 116-  
138.

조수진. (2021). 한국 대학생의 이주민 호감도에 관한 연구: 조선족 이주민을 중심으로. 상품  
학연구, 39(2), 47-52.

김홍매 (2011),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음영철, 김정현, 노동욱. (2021).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7), 225-251.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어크로스, 2018.]

## 영어 문헌

Bordo, Susan. (1993).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Castles, Stephen and Miller, Mark. (199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MacMillan.

Leidner, Robin. (1991). *Fast Food, Fast Talk: Service Work and the Routinization of Everyday Life*. Univ. of California Press.

M. Kolbe and M. M. Crepaz, “The Power of Citizenship: How Immigrant Incorporation Affects Attitudes towards Social Benefit,” *Comparative Politics* Vol. 49, No. 1(2016), pp.105-123.

Parrenas, Rhacel Salazar. (2007).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Stanford University Press.

Steinberg, Ronnie and Deborah Figaro. (1997). Emotional Labor Since ‘The Managed Heart’, *Annals AAPSS* 561:8-26

Yang-Sook Kim, Yi-Chun Chien.(2021).“We Are Not Foreigners”: Constructing Migrant Subjects through Korean Chinese Migrants’ Claims-Making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6(2), 11-40.

## 중국어 문헌

新华网吉林频道，“北方温州人”的故事，2002

俞少賓·崔興碩，“身份認同轉變的影響因素探析—基於16位在韓朝鮮族移民的結構式訪談，”

『華僑華人歷史研究』 第4期(2012);

周建新·黃超，“跨國民族勞務輸出中的族群認同與國家認同-以龍井市龍山村S屯朝鮮族勞務輸出韓國為例，”『思想戰線』 第2期 37卷(2011)

孫春日·沈英淑，“論我國朝鮮族加入中華民族大家庭的曆史過程，”『東疆學刊』 第23卷4期(2006).

圖們江中韓界務條款，”『中外舊約章彙編』(第二冊)(北京:三聯書店, 1959), p.601.

18 李海燕，“從國家、社會和族群的視點來看朝鮮族的形成(1945-1960)，”『SENRI ETHNOLOGICAL STUDIES』 90(2014), p.245.

19 “令其返回，財產依條令辦理，”『中國朝鮮族歷史足跡』，編輯委員會，『中國朝鮮族歷史足跡叢書(五)勝利』(北京:民族出版社, 1992), pp.56-567.

20 薩豐裕，“抗日戰爭勝利後中國共產黨解決東北朝鮮族國籍問題的過程，”『延邊大學學報』第45卷2期 (2012), p.120.

## 인터넷 자료

2021 외교 백서, 대한민국 외교부, 2021.12.06 [https://www.mofa.go.kr/www/brd/m\\_4105/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4105/list.do)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9~2029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1.do>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연순 교수, “간병인 제도화 입법 추진”, 충청매일, 2021.10.28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686#09SX>

간병인 급구! 요양병원 조선동포 간병인들 어디 갔나, 주간조선, 2021.10.21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64>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통계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2.05 수정)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KOSIS (검색일: 2022.05.03)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중국 제7차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개정 2019.12.2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https://www.law.go.kr/LSW/lInfoP.do?efYd=20220426&lsiSeq=241923#0000>

## Abstract

# A Study of Labor Force Community of Migrant Korean-Chinese in Korea Focusing on Caregivers

FANG YUSHU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in today's world, Korean society is turning into a diversity rather than a single-nation country.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one special existence in this society. According to statistics provi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Service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Korean-Chinese ( Chosön-jok, 조선족 in Korean) currently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owever, unlike other foreign migrants to whom Korea might be a totally new and unfamiliar country, Korean-Chinese have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 when it comes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ne hand, they are often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because of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nation'. On the other hand, Korean-Chinese people are considered as Chinese because they own Chinese citizenships, but many people think they are the same nation as Koreans at the same time because their ancestors have historically 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China. Korean government, academia, and some media often refer to groups with Korean and Chinese nationality as "Chinese compatriot (Jungguk Dongpo)", but "Korean-Chinese" is also frequently used.

Through analyzing previous studies,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Chinese was introduced in detail, and the process of their inflow from Korea to China, then again from China to Korea was summarized at the same time. Korean government classified Korean-Chinese and people who moved to former Soviet (Koryo people) together as "foreign compatriot (Dongpo)" and is gradually implementing and adjusting many related policies for them to enter Korea more conveniently after Korea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Subsequently, many Korean-Chinese started to enter Korea and began working here by applying for visas such as short-term visit (C-3-8), work and visit (H-2), and overseas Korean (F-4). Many of them also entered hospitals and are working as caregivers.

Currently,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Korean-Chinese living in Korea are concentra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seasonal labor, domestic housework workers, and caregivers or restaurant servers, to name a few. This study used data from many sources such as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Service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related field scholars to analyze the history of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living in Korea. Also, by taking deep interview with some Korean-Chinese caregivers working in Korea, we can have a more thoroug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Korean-Chinese caregivers' working condition, their understanding about personal identities about themselve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will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about what attitudes and policies should be chosen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especially Korean-Chinese which is a special immigrant and diaspora group.

Key words: Korean-Chinese, Foreigner, Caregiver, Visa, Immigrants, Diaspora, Labor Force

Student number: 2019-24300